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88年5月1日 第3種郵便物(ハ)認可) 第996號 1955年10月13日 第3種郵便物(ハ)認可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東國大學校 新聞社 (2277-3154) 5月24日 (火曜日) 4321年 西紀1988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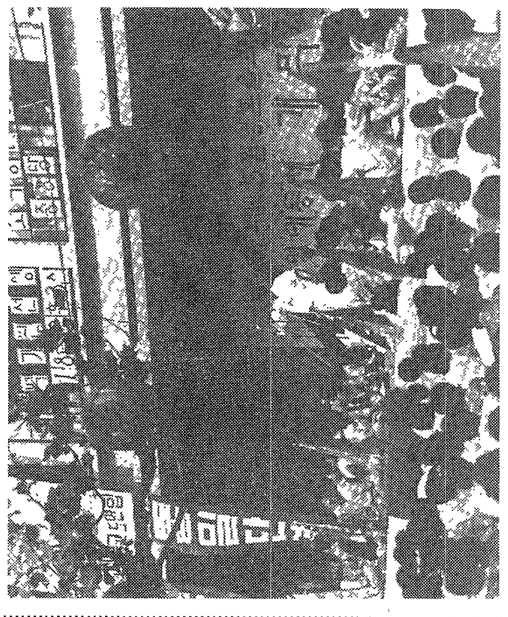
東大新聞

發行人 李 瑄 琦
編輯人 李 換 正
印刷人 姜 林 奎 浩
編輯局長 盧 建 燮
發行所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우편번호 100-715
서울시 中區 필동 3가 26
電話交換 (2277) 9131~9
本社直通 2277
광고업무소 (2277) 3154
우편번호 780-350
경북 경주시
정부등록 70번지
전화 경주 2-0131~6
每週 火曜日 發行

「광주민중항쟁 계승대회」후 격렬시위

학원자율화 요구 전국대학생 총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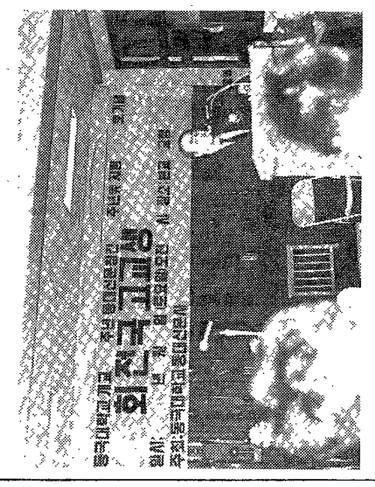
지난 19일 학원자율화 촉구 전국대학생 총궐기대회 모습



◇2면 계속 교내 21일까지 휴교령 일체의 「목적대중집회」가 지난 18일부터

경주 학원자율화 촉구 대회

지난 19일 학원자율화에 대한 촉구



서울캠퍼스 직원노조 결성

학교발전·민주구현 지향

총궐기대회 내달중에

고려병 경서대회 경주종합운동장 주최

「축제 놀이」마련

2학기 수강신청

舍監業務수 증원

기말고사 내달 13~18일

경주는 15~21일

2학기 수강신청

舍監業務수 증원

불교敎佛學 강좌

「광복이 꽃을 따 올 때 향기와 같도 지 혜있는 사람 도와 그러하여서 마음에 들어가 편안케 만을 비네。」

〈法句經〉

대학원(주간) 전기 2학기 강의 시간표

대학원(야간) 전기 2학기 강의 시간표

정경대학원 전기 2학기 강의 시간표

교육대학원 전기 2학기 강의 시간표

불교대학원 전기 2학기 강의 시간표

동국대학교

지역당 탈피로 수권능력 보일 때다

社說

통일논의 개방하라

우리는 최근 대학가를 비롯 종교계 재야등 각계에서 활발히 일고 있는 통일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정권 이후 미국과 독재자들의 안보논리가 날북고착화 심화와 특정계층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움직임은 민족통일과 자주화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라는 간절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일부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통일에 관한 암케이트조사와 북한실상 바로 알기 운동을 통해 구체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종교계에서는 이산가족 재결합, 자유로운 친척과 고향 방문 보장등 남북한 대화의 촉구는 일원화하며 통일논의의 개방에 있어 국가보안법등 실정법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키로 했다는 발표이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정부당국이 통일논의에 대해 조금이나마 개방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통일논의 개방에 따른 실정법의 불분명한 발표는 아직도 석연치않은 구석이 남아있다는 느낌이다.

강조하지만 통일논의는 어느 특정 권력이나 계급의 독점물이 아니며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통일은 한민족 전체의 염원이며 어느 정권이나 계급의 독점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기를 보내며

금년 1학기를 마치면서 새로운 감회에 젖는다. 對內外的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고 이로인해 大學은 여전히 진통을 겪어야했다. 개강초에는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학칙개정과 같은 민족화 요구로, 이어서 올림픽 남북공동개최문제,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당선과 6공출범 등 우리는 최근 대학가를 비롯 종교계 재야등 각계에서 활발히 일고 있는 통일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정권 이후 미국과 독재자들의 안보논리가 날북고착화 심화와 특정계층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움직임은 민족통일과 자주화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라는 간절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일부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통일에 관한 암케이트조사와 북한실상 바로 알기 운동을 통해 구체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종교계에서는 이산가족 재결합, 자유로운 친척과 고향 방문 보장등 남북한 대화의 촉구는 일원화하며 통일논의의 개방에 있어 국가보안법등 실정법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키로 했다는 발표이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정부당국이 통일논의에 대해 조금이나마 개방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통일논의 개방에 따른 실정법의 불분명한 발표는 아직도 석연치않은 구석이 남아있다는 느낌이다.

강조하지만 통일논의는 어느 특정 권력이나 계급의 독점물이 아니며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통일은 한민족 전체의 염원이며 어느 정권이나 계급의 독점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기를 보내며

금년 1학기를 마치면서 새로운 감회에 젖는다. 對內外的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고 이로인해 大學은 여전히 진통을 겪어야했다. 개강초에는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학칙개정과 같은 민족화 요구로, 이어서 올림픽 남북공동개최문제,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당선과 6공출범 등 우리는 최근 대학가를 비롯 종교계 재야등 각계에서 활발히 일고 있는 통일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정권 이후 미국과 독재자들의 안보논리가 날북고착화 심화와 특정계층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움직임은 민족통일과 자주화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라는 간절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일부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통일에 관한 암케이트조사와 북한실상 바로 알기 운동을 통해 구체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종교계에서는 이산가족 재결합, 자유로운 친척과 고향 방문 보장등 남북한 대화의 촉구는 일원화하며 통일논의의 개방에 있어 국가보안법등 실정법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키로 했다는 발표이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정부당국이 통일논의에 대해 조금이나마 개방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통일논의 개방에 따른 실정법의 불분명한 발표는 아직도 석연치않은 구석이 남아있다는 느낌이다.

강조하지만 통일논의는 어느 특정 권력이나 계급의 독점물이 아니며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통일은 한민족 전체의 염원이며 어느 정권이나 계급의 독점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기를 보내며

금년 1학기를 마치면서 새로운 감회에 젖는다. 對內外的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고 이로인해 大學은 여전히 진통을 겪어야했다. 개강초에는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학칙개정과 같은 민족화 요구로, 이어서 올림픽 남북공동개최문제,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당선과 6공출범 등 우리는 최근 대학가를 비롯 종교계 재야등 각계에서 활발히 일고 있는 통일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정권 이후 미국과 독재자들의 안보논리가 날북고착화 심화와 특정계층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움직임은 민족통일과 자주화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라는 간절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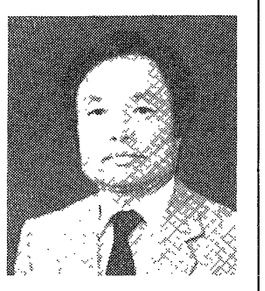
일부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통일에 관한 암케이트조사와 북한실상 바로 알기 운동을 통해 구체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종교계에서는 이산가족 재결합, 자유로운 친척과 고향 방문 보장등 남북한 대화의 촉구는 일원화하며 통일논의의 개방에 있어 국가보안법등 실정법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키로 했다는 발표이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정부당국이 통일논의에 대해 조금이나마 개방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통일논의 개방에 따른 실정법의 불분명한 발표는 아직도 석연치않은 구석이 남아있다는 느낌이다.

강조하지만 통일논의는 어느 특정 권력이나 계급의 독점물이 아니며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통일은 한민족 전체의 염원이며 어느 정권이나 계급의 독점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時事論壇

야당의 役割과 그 位像



鄭用吉
<사회과학대교수·정치학>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후 「與小野大의 政局」이라는 호칭이 나왔다. 즉 총선결과 민정당은 1백25석, 평민당은 60석, 공화당은 35석 그리고 무소속이 8석을 얻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본 여당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의석분포를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새로 펼쳐질 정치질서에 대해 궁금해들 한다.

특히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야당의 역할과 행태는 무한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나 정치윤리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對與鬪爭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지금까지 의석수의 월등함으로 강경과 독주를 일삼던 與黨은 의석수에서 과거의 영화를 누릴수없게 되었고, 반면 투쟁이 타성화된 野圈은 모든 헌법적 권한행사가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 국회에는 국정감사권을 비롯한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또 광주사태 재조사, 제5공화국 비리분쇄, 올림픽대회 후 대통령의 재신임문제등 여당이 휘청거릴 큼지막한 사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야당은 비교적 양당제에서 호칭대신 야권 또는 평민당·민주당 그리고 공화당등 각정당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것이 더정확하게되었다.

그이유는 비록 야권3당은 의석의수가 국회 총의석의 과반수를 훨씬넘어 여당의 독주를 막는데는 공동전선이 예상되나 그밖의 동상이몽의 서로 경쟁적인 위치에 설수밖에없는 일장이기때문에 여당에미치는 힘이나 정국을 주도하는 문제에있어서 거대한 하나의야당과는 전혀비교할수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평민당과 민주당을 크게 나눈 野圈으로 보는 사람들은 共和黨이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할 수 있다고 평가하나, 이 3黨의 성격과 의원들의 뚜렷한 출신지역의 차이 그리고 3金氏의 경쟁의식등으로 볼때 그리 용이하지 않으리라고 보여진다. 특히 한국의 野黨은 선명성이 생명이었던 것을상기한다면 차기 大統에 도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共和黨의 김종필총재가 어떻게, 어떤문제를 가지고 民正黨과 野圈사이에서 처신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4년후 제1당이 되고 5년후 집권가능성을 강조했으며 공화당의 길중필총재도 4년후 총선에서의 제1당 쟁취와 5년후 대통령선거에서의 승리를 자신했던 것으로 보아 3金氏는 모두 다시 大權에 도전한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3黨은 對與제1로 3黨間에도 벌써부터 경쟁 내지 투쟁의 가능성까지 있을수 있다고 하겠다.

물론 한국은 대통령중심체제이기 때문에 선구의 내각책임제국가들에서의 多黨制와 성격은 아주 다르나 우리도 정당간의 이데올로기의 거리가 비교적 크지않은 民正黨과 野圈 3黨이 모두 정권지향적인 다당제에 돌입되어 비교적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규모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守成의 묘를 살려 학교의 점진적인 발전의지를 보여주는 것만큼 크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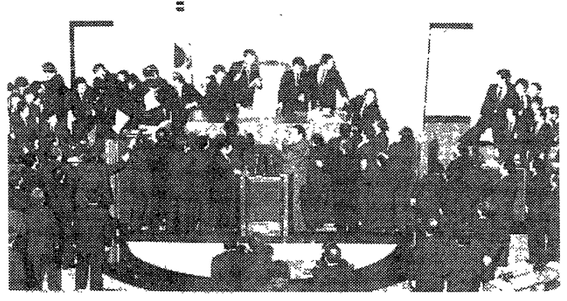
대학은 지성의 계발분 아니라 전인적인 성격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곳이며 학문을 연마하는 요람이다. 앞으로 발화를 맞아 학교당국은 지금까지 학생들에 의해 요구되어온 문제들을 보다 세심히 검토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앞서서 건설적이고 가능한 것은 긍정의 으로 수렴,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自律과 放縱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 편학의 본위기를 고조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해서 우리대학문화풍토 실상부한 지성의 산실이고 학문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82년 東國의 미래상을 재확인하는 유일한 길이 될것이다.

◇玉의 티!

각종 비민주 악법철폐와 부정척결이 과제

與野, 민주주의 훈련 부족이 정당정치 저해



야당은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확고한 정책수립은 물론 의원들도 소속분과의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多黨制의 정당정치 경험 쌓아야

다당제에서는 연립정부구성 또는 평민당·민주당 각정당의 정책조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정책조정은 3김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과거 단독정부와는 달리 각정당의 이익을 강조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누구도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새로 펼쳐질 정치질서에 대해 궁금해들 한다.

특히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야당의 역할과 행태는 무한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나 정치윤리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對與鬪爭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지금까지 의석수의 월등함으로 강경과 독주를 일삼던 與黨은 의석수에서 과거의 영화를 누릴수없게 되었고, 반면 투쟁이 타성화된 野圈은 모든 헌법적 권한행사가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 국회에는 국정감사권을 비롯한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또 광주사태 재조사, 제5공화국 비리분쇄, 올림픽대회 후 대통령의 재신임문제등 여당이 휘청거릴 큼지막한 사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교적 양당제에서 호칭대신 야권 또는 평민당·민주당 그리고 공화당등 각정당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것이 더정확하게되었다.

그이유는 비록 야권3당은 의석의수가 국회 총의석의 과반수를 훨씬넘어 여당의 독주를 막는데는 공동전선이 예상되나 그밖의 동상이몽의 서로 경쟁적인 위치에 설수밖에없는 일장이기때문에 여당에미치는 힘이나 정국을 주도하는 문제에있어서 거대한 하나의야당과는 전혀비교할수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평민당과 민주당을 크게 나눈 野圈으로 보는 사람들은 共和黨이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할 수 있다고 평가하나, 이 3黨의 성격과 의원들의 뚜렷한 출신지역의 차이 그리고 3金氏의 경쟁의식등으로 볼때 그리 용이하지 않으리라고 보여진다. 특히 한국의 野黨은 선명성이 생명이었던 것을상기한다면 차기 大統에 도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共和黨의 김종필총재가 어떻게, 어떤문제를 가지고 民正黨과 野圈사이에서 처신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4년후 제1당이 되고 5년후 집권가능성을 강조했으며 공화당의 길중필총재도 4년후 총선에서의 제1당 쟁취와 5년후 대통령선거에서의 승리를 자신했던 것으로 보아 3金氏는 모두 다시 大權에 도전한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3黨은 對與제1로 3黨間에도 벌써부터 경쟁 내지 투쟁의 가능성까지 있을수 있다고 하겠다.

물론 한국은 대통령중심체제이기 때문에 선구의 내각책임제국가들에서의 多黨制와 성격은 아주 다르나 우리도 정당간의 이데올로기의 거리가 비교적 크지않은 民正黨과 野圈 3黨이 모두 정권지향적인 다당제에 돌입되어 비교적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규모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守成의 묘를 살려 학교의 점진적인 발전의지를 보여주는 것만큼 크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대학은 지성의 계발분 아니라 전인적인 성격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곳이며 학문을 연마하는 요람이다. 앞으로 발화를 맞아 학교당국은 지금까지 학생들에 의해 요구되어온 문제들을 보다 세심히 검토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앞서서 건설적이고 가능한 것은 긍정의 으로 수렴,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自律과 放縱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 편학의 본위기를 고조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해서 우리대학문화풍토 실상부한 지성의 산실이고 학문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82년 東國의 미래상을 재확인하는 유일한 길이 될것이다.

다당제에서는 연립정부구성 또는 평민당·민주당 각정당의 정책조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정책조정은 3김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과거 단독정부와는 달리 각정당의 이익을 강조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누구도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새로 펼쳐질 정치질서에 대해 궁금해들 한다.

특히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야당의 역할과 행태는 무한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나 정치윤리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對與鬪爭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지금까지 의석수의 월등함으로 강경과 독주를 일삼던 與黨은 의석수에서 과거의 영화를 누릴수없게 되었고, 반면 투쟁이 타성화된 野圈은 모든 헌법적 권한행사가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 국회에는 국정감사권을 비롯한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또 광주사태 재조사, 제5공화국 비리분쇄, 올림픽대회 후 대통령의 재신임문제등 여당이 휘청거릴 큼지막한 사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교적 양당제에서 호칭대신 야권 또는 평민당·민주당 그리고 공화당등 각정당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것이 더정확하게되었다.

그이유는 비록 야권3당은 의석의수가 국회 총의석의 과반수를 훨씬넘어 여당의 독주를 막는데는 공동전선이 예상되나 그밖의 동상이몽의 서로 경쟁적인 위치에 설수밖에없는 일장이기때문에 여당에미치는 힘이나 정국을 주도하는 문제에있어서 거대한 하나의야당과는 전혀비교할수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평민당과 민주당을 크게 나눈 野圈으로 보는 사람들은 共和黨이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할 수 있다고 평가하나, 이 3黨의 성격과 의원들의 뚜렷한 출신지역의 차이 그리고 3金氏의 경쟁의식등으로 볼때 그리 용이하지 않으리라고 보여진다. 특히 한국의 野黨은 선명성이 생명이었던 것을상기한다면 차기 大統에 도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共和黨의 김종필총재가 어떻게, 어떤문제를 가지고 民正黨과 野圈사이에서 처신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4·26총선후 김대중 평민당총재는 올림픽후 대통령의 신임투표에 이어 89년을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발언도 내놓았고, 김영삼 민주당총재도 그러나 모든 다당제가 불안정한 것이 아니고,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오늘날 서유럽가들이 안정된 정치를 하는 예에서처럼 우리나라도 다당제에서의 정당정치의 훈련을 쌓아야 한다.

현재 야당의 역할은 우선 제기된 개헌협상, 구석자석박, 광주사태, 제5공화국비리, 1노3김회담, 이른바 갑종 비민주악법의 개정·폐지등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로 모아진다.

총선이후 야권3당은 경쟁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면서 과거의 그들의 투쟁적 이미지를 탈색시키려 애쓰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정국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다.

그러나 이제 야당의 역할은 한국에서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야당이 집권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은 과거처럼 「투쟁」만 하여서도 안되지만, 또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야당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對話」나 「妥協」만해서도 안된다. 그 이유는 정당은 정권획득과 권력유지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야권3당은 정권을 잡기위한 전략으로 인재양성, 정책기능의 강화, 당내민주화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수권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인재양성은 다음 대권도전에 누구를 내세우느냐 하는 후계자양성 문제도 있겠으나 정당이 그정당의 이념을 국민들에게 뿌리를내리고 수명을 오래 누리기위해서는 인재양성을 하여야한다.

예를들면 서독의 각정당들은 그들의 자매 청년조직을 갖고있고, 또 대학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재단도 있다. 즉 사회민주당은 Friedrich-Ebert재단, 기민당은 Konrad-Adenauer재단 그리고 자민당은 Friedrich-Naumann재단등이다.

이러한 재단들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외에 방학이나 휴일등을 이용하여 세미나를 비롯한 교육을 통해 그 정당의 이념을 심어주고 조직화하여 그 정당의 세력을 저변확대하는 한다. 또 이러한 정당들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학생들은 현실정치에 참여하게 되어 대학내의 학생운동은 오히려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정책기능을 강화는 특히 한국의 정당들이 주력을 하여야 할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보수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수긍도 가지만 각 정당간의 정책의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평민당이 다르다고 하나 그들의 상징 색처럼 아직 확사현상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몇차례의 정권교체도 결코 어느 정당의 정강·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듯이, 정당의 탄생도 국민의 이익표출기능으로서가 아니라 특정집단의 불리적 힘에 의해 탄생된 정권에 의해 요리되어졌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정당들의 정책부재현상은 쉽게 이해 될 수 있다. 즉 자유당은 부산정치파동에 급조되었고, 공화당은 5·16군사정권이 만들었으며, 민정당은 5·17후에 생겨났다.

또 야당은 여당이 국민적 지지기반을 굳히기 위해 야권의 정치인을 영입할때 제자리를 지킨 사람들로써 야당의 명맥이 이어졌기 때문에 야당의 성격은 정강·정책에 따라서가 아니라 선명도에 따라 또는 人物에 따라 좌우되었다.

특히한국에서는 정당의 정강·정책들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만 바꿔서 分黨하고, 선거때 공천을 하주지 않으면 탈당하거나 공천을 받는 것으로 일당 또는 영입되는 등의 현태가 나타나 올바른 정당정치를 할수 없었다.

더욱 새 국회에서는 야당들이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확고한 정당의 정책수립은 물론 의원 각자들도 소속분과의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政黨內 民主主義실시는 매우 중요하다. 자신들의 黨이나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정당은 절대로 집권후 민주정치를 실시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野黨의 역할은 분명하다.

야권이 올림픽후 대통령의 재신임문제등으로 과격한 투쟁을 벌려 모처럼 시도해 보려던 타협과 양보의 정치문화는 고사하고, 1980년 정치의 再版을 만들어 또 다시 軍을 정국권에 끌어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도 야당의 역할이고, 또 국민적 지지를 받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권하는 것도 야당의 역할인데, 수권정당이 되려면 하루빨리 지역당의 존재에서 탈피하여 전국적 규모의 당이 되어야 하고, 전국적 규모의 당이 되려면 다시 야권통합의 새 정치질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❶ 질서를 지키는 사회

동부그룹의 기업정신은 질서·신뢰·사랑입니다.

낚싯대로 고기를 잡되 그물질은 하지 말고,
나는 새는 쏘되 자는 새는 쏘지 말라.
—論語에서—

남보다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질을 하고
남보다 많은 새를 잡기 위해 자는 새도 쏘려는
분별없는 사고방식을 생각해 보셨읍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충분히 자기에게 어울리는
부(富)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
진실된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채
토끼 둘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잡았을때
우리 모두를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이제 「나」에 대한 이기심보다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있고
상식이 통하는 질서있는 사회를
생각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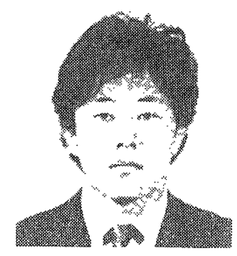
낚시는 하되 그물질은 하지 않으며,
나는 새는 쏘되 자는 새는 쏘지 않는
의연한 마음과 자세를…

동부그룹은 한결같은 생각과 행동으로
질서, 신뢰, 사랑의 그룹정신을 바탕으로
화려하지 않으나 알차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꾸준히
일하는 기업으로 철강, 건설, 화학,
무역, 금융, 보험, 전자, 운송등
각 분야에서 내실있는 기반을
꾸준히 다져나가고 있읍니다.

동부그룹

〃의회주의를 통한 혁명은 불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제3세계 혁명



강 유 원
<대학원 석사과정>

Ⅰ. 자유민주주의의 한계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A.Gramsci)는 그의 「옥중수고」에서 『의회주의와 같은 의회주의의 내용을 이루는 개인주의를 근본적으로 타파하지 않는한 결단코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이 결단의 한 그 정확한 의미에 있어서는 이윤의 「사적 점유(individual appropriation)」 및 자본과 사적 이윤의 경제적 안』이라고 하였다。이렇게 보면 그람시는 경제적 잉여의 사적 점유에 근거한 생산 관계의 상부구조로서의 부르조아 정치 체제인 의회주의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으며, 이 체제의 폐기를 근본적인문제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그러므로 다른 교환 대상과 마찬가지로 매매되는 체계인것이다。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있어서의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체제로서 구실해왔다。

그렇다면 현대의 자유민주주의가 부덩히고 있는 한계와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제일로 삼고 민주주의를 그 실질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즉 선구에서는 민주주의가 형성되기 이전에 선택적 사회와 정치, 경제적 사회와 정치가 형성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회가 바로 자유주의 국가이다。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지배자적토대를 두어왔다。다시 말해서자유민주주의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체제로서 구실해왔은 「순수한」 형태를 폐기하는 것은 의회주의의 내용을 이루는 개인주의의란 그 정확한 의미에 있어서는 이윤의 「사적 점유(individual appropriation)」 및 자본과 사적 이윤의 경제적 안』이라고 하였다。이렇게 보면 그람시는 경제적 잉여의 사적 점유에 근거한 생산 관계의 상부구조로서의 부르조아 정치 체제인 의회주의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으며, 이 체제의 폐기를 근본적인문제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그러나 현대의 자유민주주의가 부덩히고 있는 한계와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제일로 삼고 민주주의를 그 실질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즉 선구에서는 민주주의가 형성되기 이전에 선택적 사회와 정치, 경제적 사회와 정치가 형성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회가 바로 자유주의 국가이다。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지배자적 토대를 두어왔다。다시 말해서자유민주주의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체제로서 구실해왔다。

그렇다면 현대의 자유민주주의가 부덩히고 있는 한계와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제일로 삼고 민주주의를 그 실질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즉 선구에서는 민주주의가 형성되기 이전에 선택적 사회와 정치, 경제적 사회와 정치가 형성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회가 바로 자유주의 국가이다。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지배자적 토대를 두어왔다。다시 말해서자유민주주의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체제로서 구실해왔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의 일노동자는 순수히 경제적인 이유, 즉 노동력을 팔지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무산대중이라는 이유에서 자본주의의 시장 사회에 출현함에 따라 합리적 목적의 본질을 최대한의 물질적 소유의 추구로 이행한 자유주의는 당시에는 상당히 현실적인 것이었다。그리고 자유주의 국가는 비민주적 유권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당들간의 경쟁에 의해 운영되도록 고안되었다。그런데 자본주의 시장 사회에 의해 생겨난 노동자 계급이 그러한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졌을 때 국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확장함으로써 노동자 계급이 자본주의 국가의 운영에 참가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지배도구라는 본성을 어느정도 은폐하고 있을 뿐이지 결코 모든 개인들간의 관계도 평등한 것이다。여기에서 시장 경제에 의하면 사람들은 시장에 자신들의 용역·생산물·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그결과 그 사회의 총에너지와 축적 자본은 시장가격에 따라 좌우되게된다。이 시장 경제가 총분히 발달된 형태, 즉 시장에서·모든 사람들이 타인의 노동력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축적된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노동력을 제공하게 될때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이다。

이러한 시장 경제는 17세기에서 19세기를 거치는 동안 현존의 서구사회에 형성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단지 경제제도 뿐만아니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시장 관계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다른 사람과 맺은 상호 관계는 점차로 시장 관계로 변하게 되었다。이렇게 보면 자유주의라는 말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자본주의적이라는 말과 동일시되게 된다。비록 J.S.Mill이후의 윤리적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적인 자유와 자아발전적 자유를 결합시키려 노력했고, 또한 전자를 후자에 종속시키려했지만 시장을 중심으로한 경제가 우세할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데 개인의 선택-내지는 자유-에 기초한 사회는 몇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다。거기에는 커다란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내재하게 된다。

그이유는 자본주의시장 사회에서는 언제나 몇명의 사람들이 촉적된 자본을 소유하고 있어서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신의 소유만으로는 살아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양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여기에 바로 자본주의를 규정짓는 핵심적 오인이 있는것이다。즉 자본주의는 단지 시장을 위한 생산체계가 아니라 노동력 그자체가 상품으로 되고 시킴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재생산에 기여했을 따름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물적 토대에 대한 이와같은 고찰을 앞에 놓고 볼때 그 한계는 명백하지며, 그 체제가 더 이상 존속되려면 시장 경제체제의 가정을 폐기하고 자아발전을 위한 평등권을 중시해야함은 자명한 것이 된다。여기에서 우리는 마르크스에 의한 「형식적 민주주의」와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별을 생각해 볼 수 있다。형식적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에 의한 대표자들의 선거 및 투표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와 같이 추상적인 자유들에 의해 규정된다。그러나 이 형식적 민주주의는 공동체 전체의 성원들의 노동 및 생활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생계를 유지할 만한 일들을 받을 뿐이며, 일들과 교환해서 자기의 노동력을 시장에 내놓는 노동자는 4, 5년마다 대표를 선출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시민과는 유사성을 갖지 않는다。「진정한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치적 권력에만 국한된 여러 자유들의 영역을 인간의 구체적이고 경제적인 실존으로까지 확장해야하는 것이다。이렇게 볼때 마르크스에 있어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관건이 되는 것은 강제적인 노동에서 해방됨으로써 완전히 인간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며, 이는 인간이 그 내면에 자유로운 창조적 존재가 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을 전제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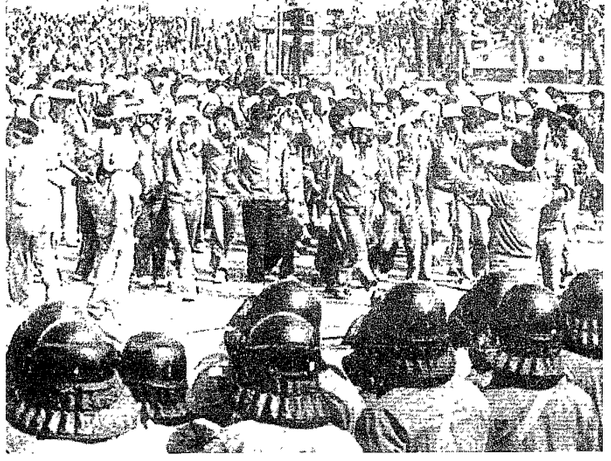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생각은 인간성의 해방을 생산체제,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그를 적토대를 두어왔다。다시 말해서자유민주주의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체제로서 구실해왔다。

그렇다면 현대의 자유민주주의가 부덩히고 있는 한계와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제일로 삼고 민주주의를 그 실질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즉 선구에서는 민주주의가 형성되기 이전에 선택적 사회와 정치, 경제적 사회와 정치가 형성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회가 바로 자유주의 국가이다。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지배자적 토대를 두어왔다。다시 말해서자유민주주의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체제로서 구실해왔다。

Ⅱ. 제3세계의 혁명이론

제3세계국가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수립은 차치하고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용어 그 자체도 매력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거부되어왔다。그 이유는 여러가지를 들 수있지만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에서도 보았듯이 그 정치체제가 사적 소유에 근거한 개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에따라 필연적으로 자본가 계급의 지배를 정당화시켜왔다는 점이라할 수 있다。그러므로 제3세계의 경우에 선구의 자유 민주주의가 적응하려면 정치적 행위에 관한 수단의 변혁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에토스를 복적으로 하고있는 그 목적 이론상의 변화도 시도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구의 이데올로기가 살아남으려면 그 기저를 이루고 있는 사적점유에 근거한 개인주의를 포기해야하는 것이다。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속성산업화를 위한 국가(Harrington)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제국주의적 본질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서, 제3세계에서는 당연히 거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3세계국가는 내부적으로 착취와 피착취계급으로 나뉘어진 계급적 모순뿐만 아니라 그 사회전체가 외부세력에 종속되어있다。

Ⅲ.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망

지금까지 우리는 선구의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본질과 한계, 그리고 제3세계 혁명이론이 지닌 역동성과 상충 적합성에 대해 간단히 탈구해 보았다。이제 남은 과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토대를 두는 한 더이상 그정당성을 합리화할수 없게된 선구의 자유민주주의의 나아갈 길과 제3세계 혁명이론이 지닌 의의를 밝히는것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풍입없는 물질적 소유의 획득 추구를 인간의 본성으로 파악하는 선구의 이데올로기는 제3세계국가에서 비등하는 민족의식에 근거한 혁명의 성공에 따라 더이상 「확장 해결 여지를 잃고, 급기야는 근거한 가정에 이르렀다。정당성마저도 상실하기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계속해서 존재하려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재결로와 더불어 사적 점유에 근거한 개인주의의 나타남이다。세계는 혁명적 시대에 접어들어 새로운 위기, 어떻게 보면, 다시 등장하는 일곡년의 계급간, 파거에는 일곡년의 계급간, 개인간에 살돋하던 대립과 위기가 국가간으로 확대된 것이다。그러므로 선구의 이데올로기는 시장에 근거한 정권적 요소를 탈피하면서, 자본주의에서 발달한 극대화된 생산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한다。

이러한 방향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르크스가 에견한 현재에적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일수도 있다。

선구 이데올로기의 모순의 극복을 위해서는 개별주의적인 분배적 정의에 입각한 소위 「복지국가」의 도입을 주장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을 극복하기는 커녕, 인식조차 하지못한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특히 전후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제3세계의 혁명에 있어서는 더욱 모순과 계급 모순을 동시에 해소할수 있는 길은 그러한 개량적 발법이 아니라 토대를 자유 경쟁의 시장체제가 아닌 것으로 구축해야함은 앞서의 여러 논의속에서 밀흡하나마 밝혀졌다고 본다。

선구의 이데올로기와 제3세계 혁명의 혁명이론이 공존하는 현재에 있어서는 평등주의적 인간주의의 대적 점주에 근거한 개인주의의 실현이 관건이 되는 것은 강제적인 노동에서 해방됨으로써 완전히 인간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며, 이는 인간이 그 내면에 자유로운 창조적 존재가 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을 전제로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생각은 인간성의 해방을 생산체제,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그를 적토대를 두어왔다。다시 말해서자유민주주의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체제로서 구실해왔다。

그렇다면 현대의 자유민주주의가 부덩히고 있는 한계와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제일로 삼고 민주주의를 그 실질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즉 선구에서는 민주주의가 형성되기 이전에 선택적 사회와 정치, 경제적 사회와 정치가 형성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회가 바로 자유주의 국가이다。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지배자적

기획시리즈

지배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진단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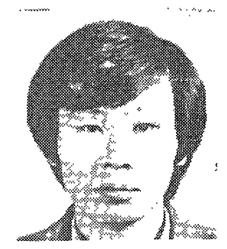
제국주의 지배이데올로기의 상립과 본질

민족의 자주권이 침탈·구속돼

일제식 민지구조가 미제국주의에 의해재편

제국주의의 상부구조를 통한 주변국의 지배는 사회모순 심화와 저개발 국가의 식민지적 종속을 가져왔다

강 분 도 〈자유기고가〉



◇글싣는 차례

1) 분단상황과 지배이데올로기의 대립양상
2) 지배이데올로기의 사적고찰
3) 반공이데올로기의 계급지배적 성격
4) 제국주의의 민족 지배이데올로기
5) 민중 이데올로기의 창출과 전망
6) 시리즈를 마치며

Ⅰ. 문제 설정

역사의 한 계기로서의 주의가 유럽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의 전세계적 과정으로 확산된 것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의 발전은 A·A·LA 전역에 걸쳐서 낡은 국가구조를 파괴·변혁시켰거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여 결국 자본주의 국가를 확립시키는 힘이 되었다。

2차대전 이후 독립을 달성한 제 3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회적 변동과정 중의 하나가 식민지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자본주의 국가로의 이행이었다。

이러한 移行을 가능하게 한 것, 그리고 그것이 주변부 국가의 내부구조에 미친 영향, 새롭게 야기되는 제모순에 대한 문제는 결국 帝國主義의 성격과 시대적 변모와의 관련에서만 해명될수 있다。80년대 현단계 한국사회의 특성으로서는 첫째, 舊식민지 경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들수 있다。봉건체제의 해체에서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이 내생적인 과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제국주의 상황하에서 타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둘째, 舊식민지 상황의 해체가 곧바로 완전한 정치적 독립,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구식민지하의 과제가 독립 후에도 온존되거나, 혹은 支配國家의 지배방식이 비공식적 혹은 전화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세째, 현 상황이 기본적으로는 불균등구조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이는 또한 이데올로기적 정치작업으로 인해 국민 내부에 일정하게 의식적으로 일상화됨으로써 다분히 民族內 모순으로 비쳐진다는 점이다。네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사회의 지배적인 양식으로서 확립되어 資本主義的 운동법칙이 단순히 외부적인 動論理가 아니라, 內部的인 운동논리로 정립해 간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네가지 특성은 각기 개별적인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착되어 표출화되어 있다。그럼으로 한반도 사회의 구조문제는 제국주의의 의부요인과 변수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80년대이후 남한에서 일기 시작한 제국주의의 구체적 비판, 수렴과 저항 이데올로기에로의 수렴, 운동화는 구체화된 대제국주의관이 정립되어 가고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Ⅱ. 帝國主義의 支配이데올로기

제국주의의 본질은 본래 불균등하며 착취적인 동시에 자기모순적인 파괴적인 자본축적의 논리에 따라 생산력을 발전시킨다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역할이 국제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는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의미부여상 보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이론을 그 골격으로 하고있는데 이에 대해 나타난 첫번째 발상은 친절한 부정이라는 용어로 설명된다。보이지않는 손이 보편적인 복지의 증진을 위해 작용한다는 실용주의적 경제학파의 견해에 의하면 부유한 국가는 가난한 국가에게 이익을 전파해 준다는 것이다。이 모델에서는 개인의 욕망이 공공의 선을 산출한다는 자유방임의 사조가 국제무대에로 확대 적용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발상은 저발전국이 이중사회이기 때문에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진국에서는 서구적인 기술뒷받침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인 것이다。

제3세계에 있어서 식민지 반봉건사회는 자본주의 발전의 한 걸이였다。

일반적으로 식민지·반봉건사회는 帝國主義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나라는 1876년 강화도조약을 기점으로 封建社會에서 近代社會로 접어들었다。日本 제국주의의 직접적 지배의 형태를 띈 식민지·반봉건사회하의 한국경제에는 봉건제의 경제와 원래 그 종속하에 있었던 개인경제 외에, 제국주의 자본의 경제, 예속자본주의및 민족자본주의가 있었다。한국에서는 일본제국주의 資本이 支配的이었으며 봉건경제 또한 과도기적인 성격의 경제로서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고 제국주의에 의하여 지지·보호·이용되면서 전체경제 속에서 그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민족자본주의의 경제는 제국주의의 압박을 받아 그 발전이 저지되었으며 더구나 다른 경제부분 대신에 전경제를 지배할 수도 없었다。

이후 제국주의는 부분적으로 러시아혁명과 민족해방운동의 고양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제국주의 중심부의 경우 경제공황에 따른 국가에 새로운 기능이 첨가된 것은 물론이다。

이에비해 제3세계에서는 토착자본과 미국을 비롯한 帝國主義國과의 투자관계에 입각한 SEATO, CENTO, OAS등의 군사·정치블럭, 2국간 군사·정치동맹, 社會主義 주변부및 전략적 지역에 설치되는 군사기지망등의 정치체제·군사구데타·민족주의정권의 변질등을 통한 제기된 종속적 정권의 옹립, 군사간섭 등이다。

또한 삼부구조를 통한 주변국의 지배는 주변국의 독립후의 사회모순의 격화와 이를 매개로한 민족해방운동의 고조 추세 속에서 한계를 갖게되어 하부구조 자체를 내부로부터 자본주의의 발전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장기적 수단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것이 곧 경제적·금융적 형태이다。이러한 메카니즘의 일환을 이루는 것으로 국가자본주의의 수출, 이른바 경제원조가 있다。

맥도프 (H. Macdoff) 는 경제원조의 목적을 『자적 독점자본을 위한 분호개방의 강제, 통상및 투자기회를 찾는 자적 자본을 위한 직접적·경제적이익의 획득, 발전도상국 경제적이익의 획득, 발전도상국 경제적 이익을 자본주의적 방향으로 정착시키는것, 금융자본의 세계정책 보완등 제국주의의 직접적인 경제이익의 추구뿐만 아니라 정치적·군사적·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하고 있다。

원조의 이용은 매우 다목적이다。발전도상국 경제계획에 대한 직접원조와 삼각 민족자본에 대한 직접원조, 삼적 민족자본에 대한 차관금융, 국가간 및 국가기관에 있어서의 훈련과 선구적 생활양식 지향, 민족주의 정부의 과도정의 지원책 대응자인 주변부 변경시키기 위한 압력등이 있다。

착자본가의 지배하에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가 구성되었다。또한 제국주의적 지배의 새로운 형식으로 제국주의 생산관계의 국내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즉 자본주의세계의 과학기술혁명에 따른 선진자본주의국의 산업구조 변화 및 저발전국에 관련된 국제분업체의 구조적 변화, 특히 이전의 식민지, 반식민지, 종속국등의 국가적, 정치적 독립및 이를 토대로 한 자립적 국민경제 건설의 진전등에 대처하기 위하여였다。그러므로 국가독점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가지고 보강된 독점자본의 지배체제, 글로벌관투제이다。

국가독점 자본주의의 개념은 그 형태규정에서 볼 때 國家의 經濟過程에의 개입, 국가와 독점자본의 유착, 經濟의 政治化이다。신제국주의 기본특징은 달성을 위해 경제·사회전략을 기축으로한 전략이 정립되고 또 그에 따른 구체적 정책형태가 전개된다。첫째, 정치적, 군사적 제에 부터 부터 정치·사회·

또한 다국적기업이 있는데 이는 발전도상국과의 투쟁에서 수입대체관계로서 상당부분의 저발전국 국내시장이 형성되자 저생산체계를 갖추는 것이 오히려 획득에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이를 위해 제국주의의 국가는 범세계적인 금융망·개발은행·신용형성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에 유동성 자본을 공급해 줌으로써 잉여의 수출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제국주의의 일련의 기전개는 종속국과 주변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속의 심화로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기인되는 것이 크지만, 이 자기전개에는 경제적 갈등상황의 문제에 부터 정치·사회·문화등 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것에 비해 더욱 심화된 갈등구조로 정립하며 사회전반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정착되는 것이다。

전후 미국자본주의의 한국에의 진출의 과정은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전반에 민중적의 반일감정 및 노선을 매개·대처하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의 상황은 일제시대 그에 대항한 저항이데올로기가 종속변수적 개념에서 해방을 계기로 독립변수적 개념으로 위치전화되어 있었다。그러나 이는 한반도 내에서 일제시대 보완세력이었던 지주·예속자본가등을 소외시키는 것이었다。군정기간 3년은 자본운동의 제형태에 따른 미국자본주의의 의도관철들가져온다。

戰後 한국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에서 미국은 日帝 식민지 통치하 식민지 경제구조의 두개의 지주로 되는 반봉건적인 지주·소작관계 그리고 식민지 자본주의의 청산, 재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이는 戰後 南韓社會의 社會구조의 기본적 틀이 미국자본주의 중심으로의 설정을 지닙으로 위치전화되어 있었다。그 예속자본가등을 소외시키는 것이었다。군정기간 3년은 자본운동의 제형태에 따른 미국자본주의의 의도관철들가져온다。

戰後 한국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에서 미국은 日帝 식민지 통치하 식민지 경제구조의 두개의 지주로 되는 반봉건적인 지주·소작관계 그리고 식민지 자본주의의 청산, 재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이는 戰後 南韓社會의 社會구조의 기본적 틀이 미국자본주의 중심으로의 설정을 지닙으로 위치전화되어 있었다。그러나 이는 한반도 내에서 일제시대 보완세력이었던 지주·

전통사찰보존법…독소조항 "여전"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

○…불교의 자주적 발전과 종교적 자유를…○
○…억압해왔던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대체입법인 전통사찰 보존법이 시행되…○
○…고있으나 기존의 불재산관리법의 골격과…○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온존 하고 있다。따…○
○…라서 이러한 문제점과 이에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편집자註> …○

Ⅰ、보존법의 제정배경과 경위

불교의 자주적 발전을 억압하고 정치권력에의한 특정종교의 규제라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성격으로 문제되어왔던 불교재산관리법(이하 불재법)이 오는5월28일로 폐지되고 동시에 그 대체입법인 전통사찰보존법(이하 보존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보존법 역시 불교의 자주화와 민주화라는 대다수 불자들의 여망과는 달리 기존의 불재법이 갖고있던 기본골격과 독소조항들이 온존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안고있다。

또한 기존의 종단과 불교계 일각에서는 근본적 불교발전방향을 수립하지 못한 채 법률안에만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인식있는 불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있다。

1) 불재법의 제정배경

일제하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1911년 제정된 사찰령은 친일불교계승의 양산과 삼중승의제도의 파괴를 통한 주지전횡、본산제도를 통한 교단분열등 한국불교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왜색과、비민주성을 부식시키게 된다。

이러한 사찰령은 해방이후에도 여전히 그 법률로서의 효력을 잃지않고 불교위에 군림했으며 그 독소조항은 그대로 불재법으로 재생되게 된다。

2) 불재법 운용과정 문제점

불재법의 운용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먼저 60년대에는 당시 비구·대처분쟁으로 인한 불교재산유실의 방지와 비구중심의 통합종단을 통한 본규의 해결에 기여한 면도 없지 않으나 불교에 대한 정권의 간섭 및 규제가 심화되었으며 불재법은 그 주요한 도구로 정착되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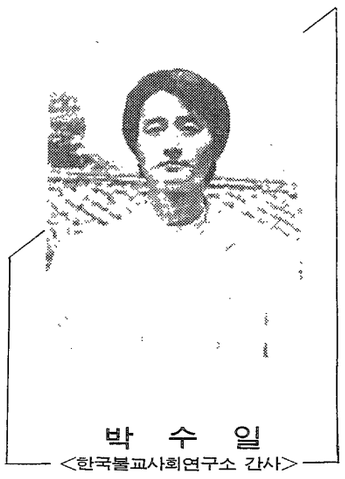
70년대 초에는 종단이 어느 정도 정착되자 불재법의 폐해에 대한 자각이 싹트고 70년 2월「광주 증심사의 재산관리인 임명」과「사찰재산관리지침」등 정권의 행정적 간섭강화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있었으나 유신독재로 인한 경제정국으로 꼬리를 감추고 만다。

80년대에 들어서 서울의 불과 합계 각계의 민주화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불재법에 대한 개정논의도 활발해졌으나 10·27법난을 당하면서 위축되었으며 80년과 81년 두차례 개정시안이 마련되었으나 이러한 불교계의 개정움직임에 대해 오히려 정부는 83년 관계당국의 자료제출을 명령권、검사권 신설、벌칙 대폭강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재법개악을 시도하기도 했다。

1986년9월 7일의 해인사 전국승려 대회에서는 불재법을 비롯한 불교 제악법의 철폐등 불교자주화를위한 10개항의 결의문이 채택되었으며 이 대회는 이후 불재법폐지와 불교자주화운동의 결정적 전기가 되었다。

3) 보존법의 제정경위

해인사 승려대회 직후 조계종은 종단부는 우여곡절에 확정된 문공부의 개정안에 대해 종단과의 협의를 거쳐 87년4월30일 개정안의 시안을 마련했으며 이것이「불교재산보존법안」이다。그러나「불교재산보존법」은 불재법의 명칭만 바꾸어 놓았을 뿐 불교계의 염원과 달리 불재법과 다를 바 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강력히 대두되었다。



박 수 일
<한국불교사회연구소 간사>

또한 전통사찰에 소속된 종교단체의 결정이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지전횡으로 관의 허가만 있으면 사찰재산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5) 전통사찰 주지의 신고(제4조)

「전통사찰의 주지는 그 취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문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불재법에서 등록제로 되었던 것이 신고제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종단내부의 인사행정의 문제이며 이를 국가 권력이 간섭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전통사찰이 부실운영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전통사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조치를 취하면 될것이며 사전신고제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6) 전통사찰의 사업(제8조)

또한 전통사찰의 사업은 종래의 불교재산의 보존·관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전통사찰이 부실운영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전통사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조치를 취하면 될것이며 사전신고제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3) 전통사찰 주지의의무(제5조)

「전통사찰의 주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부담하여 사찰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민법상 특별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8) 벌칙과 보조금(제14조·제15조)

그밖에 벌칙규정과「국가 또는 방자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수 없다。

전통사찰의 재산보장(제10조)、주지의 재산취득 금지조항(제11조) 문공부장관이 그 권한을 지방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조항(제13조) 등은 기존 불재법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여진다。(불재법 제16조、제7조、제10조)

Ⅲ、보존법의 시행과 대응방안

불재법이 폐지되고 대체입법인 보존법이 제정되었으나 새로 제정된 법도 전체적인 맥락속에서 살펴보면 단순히 전통사찰의 보존분만 아니라 불교재산 전반에 대한 간섭과 규제로 교묘하게 운용될 소지가있다。특히 제정될 시행령은 모법보다도 광범한 행정규제와 관의 간섭을 합리화할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불합리와 부작용이 예상된다。

더우기 앞에서도 거론했듯이 보존법의 규정을 받는 전통사찰의 범위를 가능한한 작게 함으로써 불교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뿐만 아니라 현 종단측에서는 되도록 많은 조계종사찰이 보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향의 대응방안을 갖고 있다고 한다。만약 이렇게 될 경우 보존법은 실효적으로 불교재산 전반을 관리·규제하는 불재법의 연장효과를 갖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또 다시 불교스스로 정권의 규제와 억압이라는 올가미를 끌어들이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것은 불재법의 폐지를 계기로 불교계는 진정한 자율적 개혁의 전기로 살아야 할것이며 보존법에 의지하여 불교계의 현재구조와 기득권을 유지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의 자주화를 위한 구조적 모순의 척결과 함께 그간의 정권에 대한 예속성과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려는 철저한 자기반성이 뒤따라야 할것이다。

1) 입법취지및목적(제1조)

보존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보면 불재법의 폐지와 함께「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 전통사찰을 종합적으로 보존·관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각 사찰의 재산 및 인사관리의 현대적 개선과 함께 종단내부의 각종 구조적 병폐들을 척결하고 민주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문제가 된 재산관리에 있어서도 타성에 젖어 법률에만 의존하려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종단내에「불교재산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등의 자율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종래의 주지중심적인 사찰운영체제(주지전횡)에서 벗어나 불교자체가 갖고 있는 민주적 제도인 산중공의제도를 통한 사찰운영의 합리화와 민주화가 그 관건이다。

더불어 종단운영에 있어서도 종단내의 합의적 의사에 기초하지 못한 채 관권과 결탁해 이익중심으로 종단운영을 하는 폐로는 반드시 불식되어야 한다。

또한 내부적인 총무행정을 수행하는 일과 함께 관청이나 신도단체및 타종교·종파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줄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본방침을 세움으로써 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종단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전통사찰의 등록(제3조)

「국가에서 그 보존을 필요로 하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사찰은 문공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통사찰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과 절차는 모법 규정했어야 타당하며 모든 것을 시행령에 일임함으로 해서 위임입법의 한계성에 부딪치고 상하위법의 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 전통사찰의 범위는 가능한 한 좁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잡아 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종단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경내지의 규정과 재산처분(제2조、제6조)

「전통사찰의 주지가 당해사찰의 경내건물 또는 경내지의 사용을 폐하거나 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문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무효로 한다」「경내지라 함은 불교의 의식、승려의 수행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내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 태도이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경내지의 범위는 청정도량을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넓게 정해져야 한다。

10·27법난은 80년 불교계 민주화움직임에 대한 반민주적행위로 불재법의 개정논의를 위축시켰다。

4) 신도조직의 활성화

신도단체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엉보단도 전전한 신도단체의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단의 권력종속화 현상과 더불어 기존 신도단체들은 대부분 정치권력과 유착하여 본래의 역할을 다해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또한 한국불교의 속가중심경향으로 인해 신도조직들은 단순신앙활동의 소극적 활동에 그 영역이 국한되어 왔다。

이제 각 신도조직들은 승가와 더불어 한국불교의 운영체제에 있어 기존의 속적이고 타율적인 인식아래 자체를 극복하고 사부대중의 본래적 역할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5) 법인설립을 통한 종단의 내실화

또한 불교종단은 불재법의 폐지에 따라 임의단체화 되어 권리능력 없는(비법인) 사단으로 남게 된다。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종단은 종헌、종법에 따라 종무행정을 수행해 나가면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단지 그동안 관에 의존한 기존의 종무행정체제와 합리적으로 정비되지못한 측면、종법을 가지고는 재산관리의 공백이나 내부적인 갈등、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또한 비법인 사단으로는 날게 되면 부정당하며 공신력이 떨어은 문제가 발생하며 공신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단을 법인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이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종단은 불교종단이 모인 인적결합의 형태로 보아 사단법인으로 등기하고、각 구성원의 재산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산하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따라 여러개 두는 방법이며 큰 종단에 적합하다。

둘째、종단은 비법인 사단으로 남아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그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종단을 지원해 주는 유지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는 방법이며 군소종단에 적합하다。

7) 재산관리인의 임명(제12조)

「문공부장관은 전통사찰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찰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불재법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되어왔던 독소조항이 답습된 조항이다(불재법 부칙 제3조)。이 경우에도 전통사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와 함께 종단 내부의 종헌·종법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존법…정치권력의 특정종교 규제

종단·사찰운영민주화와 통헌등의 정비 시급

교재산 전반에 대한 간섭과 규제로 악용될 소지가있다。특히 제정될 시행령은 모법보다도 광범한 행정규제와 관의 간섭을 합리화할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불합리와 부작용이 예상된다。

더우기 앞에서도 거론했듯이 보존법의 규정을 받는 전통사찰의 범위를 가능한한 작게 함으로써 불교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뿐만 아니라 현 종단측에서는 되도록 많은 조계종사찰이 보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향의 대응방안을 갖고 있다고 한다。만약 이렇게 될 경우 보존법은 실효적으로 불교재산 전반을 관리·규제하는 불재법의 연장효과를 갖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또 다시 불교스스로 정권의 규제와 억압이라는 올가미를 끌어들이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것은 불재법의 폐지를 계기로 불교계는 진정한 자율적 개혁의 전기로 살아야 할것이며 보존법에 의지하여 불교계의 현재구조와 기득권을 유지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의 자주화를 위한 구조적 모순의 척결과 함께 그간의 정권에 대한 예속성과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려는 철저한 자기반성이 뒤따라야 할것이다。

1) 종단 및 사찰운영의 합리화와 민주화

본교교단 운영에 있어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점은 전근대적인 운영방식과 봉건적인 종단체제이다。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종단헌법부터 각 사찰의 재산 및 인사관리의 현대적 개선과 함께 종단내부의 각종 구조적 병폐들을 척결하고 민주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종래의 주지중심적인 사찰운영체제(주지전횡)에서 벗어나 불교자체가 갖고 있는 민주적 제도인 산중공의제도를 통한 사찰운영의 합리화와 민주화가 그 관건이다。

더불어 종단운영에 있어서도 종단내의 합의적 의사에 기초하지 못한 채 관권과 결탁해 이익중심으로 종단운영을 하는 폐로는 반드시 불식되어야 한다。

또한 내부적인 총무행정을 수행하는 일과 함께 관청이나 신도단체및 타종교·종파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줄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본방침을 세움으로써 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종단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종헌·종법의 정비

불재법이 폐지됨에 따라 불교단체 및 사찰등의 재산관리、인사행정의 원칙적으로 내부규정에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종래의 불교재산을 비롯한 불교단체와 그 대표자들을 묶고있는 본법에는 전통사찰에 소속된 종단을 비롯한 불교단체와 그 주지들을 묶고있는 본법에는 전통신고하도록 한 사실이다。따라서 종단 산하에 있는 사찰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헌·종법의 개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종단의 종헌행정기구가 소속사찰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 있는가?

물론 조계종의 경우 종헌·종법에 이러한 규정들이 있지만 그 조항들이 실효성·합리성이 결여되어 구성원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면 종단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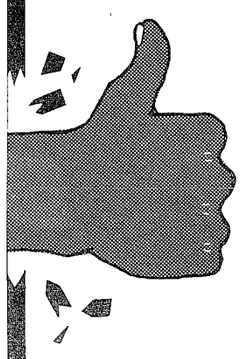
우선 조계종의 경우 신임히 개정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종법의 제정과 인사행정규정인 종무원법의 전면적 개정또는 새로운 제정이라고 생각된다。이에 관한 작업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연구·검토가 뒤어져야 할 것이고 점진적인 개혁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3) 법인설립을 통한 종단의 내실화

「전통사찰의 주지는 불교목적의 범위안에서 포교사업、사회복지사업、기타 공익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할수 있다」 우선 이러한 불교목적사업들은 당연히 모든 사찰에 인정되어야 하므로 큰 의미가 없는 주의규정에 불과하다。

또 여기서「주지」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수 있다는 것을 불법에 규정하는 것은 불교의 자율성·

시사영어학원의 자부심!



TOEFL
VOCABULARY
LISTENING
GRAMMAR
READING
TIME
영어회화
STREAMLINE
일본어·독일어
TOEFL600(종합반)

시내에는 수많은 외국어학원이 있읍니다. 그만큼 외국어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교수법과 가장 중요한 외국어 길잡이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학원이라면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책임질 수 있읍니다. 이제 시사영어학원으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단호한 결정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전통과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강 : 6월 1일

종로2가 종각뒤편
時事英語學院
상담대표전화 734-2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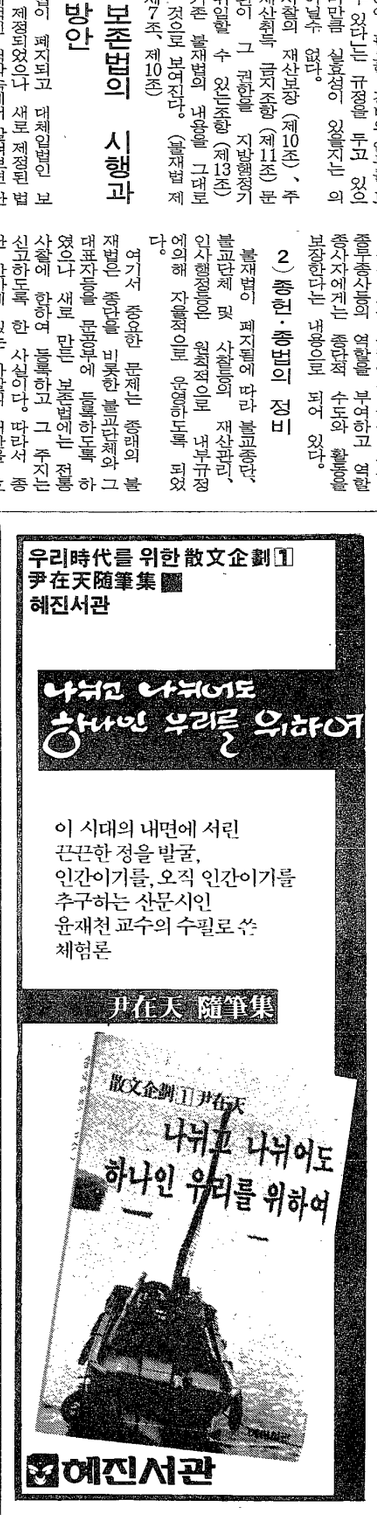
SMC 수시등록
LEARN NOT, AND KNOW NOT.
SMC프로그램의 최신, 청각—시각, 인지—반사의 학습과정
외국어 직강의 Easy Right Way!
- American English—LRC Workshop
- 미국어 청취토론—Topic Discussion
- AFKN Self-Study Club(Tape, Script우송)모집
  - 60minutes, World News, The People's Court, etc.
- 종합TOEFL+L/C(+AFKN)
  Structure+Reading+Writing+Actual Test
- 易しく 自然 に話せろ 日本語 基礎~高級会話
- 北京中国語会話, 從基礎開始, 会使你們 滿足.
VIDEO-LAB실 완비 무료개방
성민외국어학원
SUNG-MIN LANGUAGE INSTITUTE
☎671-0066~7, 영등포 전철옆

金小葉詩集
발간 석 달만에 7판 발행
님을 그리는 승화된 사랑의 詩美學, 영혼으로 만나는 순정한 사랑의 갈구

〈영의 신랑이신 하나님과 육의 남편이신 장로고 양 영재교수님께 첫 열매를 바칩니다。〉
유한한 사랑에서 영원성을 지향하며、 초월자에 대한 영적 그리움과 사랑으로 승화시킨 김 소엽의 시편들은 시적 긴장감과 가슴을 찌르는 절실성을 동반한다。
향해 띄우는 김 소엽 시인의 사랑 헌시。

그대는 별로 뜨고
2,000원 文學世界社 (764)2672.

우리時代를 위한 散文企劃 1
尹在天隨筆集
혜진서관



全國大學新聞 광고문의 741-1166612

詩部 우수1석

이 춘 대
<부산공고 2년>

우유빛으로 타고오는 안개를 벗겨내면 언젠가
잊어버렸던 내 어머님의 기억들이
땀같은 물기를 세워 꿈틀거리고 있다。
삶을 확인하는 몸짓으로
숲을 일으키는, 풀을 일으키는
고향이란 끝도 없이 단단한 믿음。
그 믿음이 살아오는 때。
내 모세혈관속에 빛살같이 숨을 쉬는 세포는
거북한 믿음을 곱게 빗질하고
당신으로 인해
너무도 진실한 내 가슴속엔
꿈이라는 커다란 아픔을 나무처럼 바르게 키우며
시간을 넘실대는 호수가
이슬이 되려,
아침이 되려 소리를 하고 있었다。

알기위한 몸짓은
하루도 빠짐없이 내 잠속에서
꿈을 일으켜 세우며
아른한 계절의 흐릿한 아지랭이로 피어 올라
사랑만 원하기를 그 때마다
발의 깊이 만큼이나 길게 밀려오는
미소로 자라고
떠도는 유년의 푸르른 꿈은
내 진한 그리움만큼 강한 음성으로
다시금
하늘 높이 펄럭이며 소리치게 하는데
바람은 어데로, 습한 바람은 어데로
흘러 가는지……。
짧게 짧게 몸을 떠는
연한 산마루를 짚고 만나는
오늘과 내일의 비어있는 일기장엔
다시
아득한 어머님의 숨소리에
아침의 조용한 음률로 풀어내는
하루。이 하루가
풋풋한 사랑으로 정다움고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내 유년의 영상이
소중한 무지개로 피어나
우리의 여린 손목을 꼬옥 잡고
건강한 눈빛으로 움트는 새벽을 보면
그렇게 살아오는
진정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다。
당신과 나의 만남으로
떠도는 커다란 아침의 힘이여。
희미한 안개속에서
젖어오는 생활이여。
빽빽이 밀려오는 플라타너스의 기침소리로
먹구름은 빗물이 되어 무너져 내리고
그 습한 바람의 울음으로
다시
흐릿한 우리의 표정이 유년의 꿈을 세워
등불처럼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거리엔 시리도록 튼튼한 바람소리……。

등불

詩 장원

이 상 덕
<성동고 2년>

불을 켠다。
물먹은 불빛 하나로
밤 보다 긴
편지를 쓴다。
어머니
아무도 뵈지 않는 이곳에서
울까 울까 했는데
이미 울어버린 눈물이 많아
더이상 흘릴 것이 없던 당신
어루운 눈물 안으시고
웃음으로 대하신
당신 앞에서
속으로 속으로만 오열하던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요
어머니
당신은 어둠을 사르는
꽃무늬 물결
눈물로 맺은
빛의 씨앗
밝히소서
밝히소서
당신이 일어선
그 자리를 밝혀 주소서
헛딛지 않을 자리
마련해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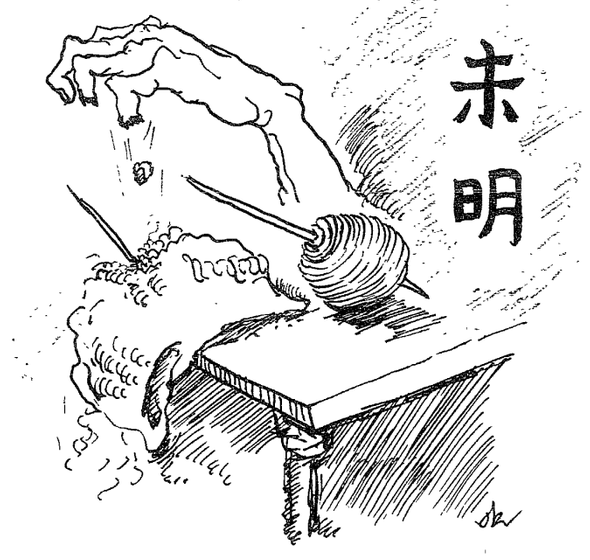
本社주최 제26회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 수상작

小說部 우수1석

未明

정미는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끈끈한 땀이, 형원늄으로 총총한 환자복어, 배늄들었다。에어컨이 고장 났다고, 대신 가져다 놓은 선풍기는 연신 더운 바람만 뿜어대었다。그때 간호원이 들어왔다。
『정미야, 약 먹을 시간이야』
정미는 돌아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자, 고집 부리지 말고』
『싫어요 싫단 말여요。그란다고 약 다신 안먹어요。내 얼굴을 좀 봐요!』
어깨에 얹혀졌던 간호원의 손을 뿌리치며 정미는 소리를 질렀다。숯덩이처럼 까맣게 되어버린 정미의 얼굴은 본눈로 일미는 고개를 푹 숙이고, 흘러퍼 소리를 일부러 크게내며 걸었다。며칠 전 자기가 잘른 줄 알고, 어머니와 언니가 나누던 대화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엄마 아무래도 파흔해야 쟀어요。』
『정미 뗴분에?』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차라리 잘된 일이지 몰라요。동생이 나병에 걸렸다고, 저까지 의심하더군요。』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두덩이를 찍어냈다。
『정미가 이렇게 된 걸 슬쳤어야 했는데……。』
『아녀요 동생을 숨겨가면서 결혼하고 싶진 않아요。』

『한여름에 부슨 털 쉐타여요?』
『누구지? 여기는 들어올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악간 놀라는 듯 했지만,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1병동에 있는 환자여요。』
『빨리 가。여기 있으면 안돼。』
『괜찮아요。여기 멀리 있을게요。』
『그럼 조금만 있다가 가야한다。』
걱정이 됐지만 장여사도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웠다。뜻밖의 이 손님이 반가왔다。
『꼬마 옷 같은데요?』
『응 내 아들 옷이지 보내주려고。
지난 겨울부터 짜던 것인데 손이 이렇게 생쳤으니。』
정미의 눈은 갑자기 차가운 빛을 발했다。
『그 아들이 옷을 받고 기뻐할까요? 몬돈댐에 걸린 어머니가 짜준 옷이라고 외면할 텐데요。』
가슴을 찌르는 듯한 말이였다。그러나, 장여사는 놀라지 않았고, 동요되지 않았다。
『난 그렇게 생각지 않아。』
계속 뜨개질을 하며 말을 했다。마스크에 일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 천천히 또박 또박 말을 이어갔다。
『난 내 아들에게 정성을 주고 싶은거란다。아들이 외면을 하더라도 내 마음을 전해 주고 싶어。내게 남아 있는 것 모두를 말이야。』
『글쎄요。차라리 아들에게서 빨리 잊혀지는 것, 그것이 정말 아들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요?』
『언젠가는 잊혀지겠지。하지만, 나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람되게 보내고 싶단다。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보다 나에겐 너무도 적은 시간이 남아있지。이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는 것이 나에겐 큰 행복이야。』
『누구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짧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生)은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가족에게 짐이 될텐데요?』
『누구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짧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生)은 자기 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가족에게 짐이 될텐데요?』
『정미야! 정미야!』
간호원이 따라서 나왔을 때에 정미는 시야(視野)에서 벌써 떠나 있었다。
『김 간호원。정미양이 또 약을 먹지 않했다던가?』
약 정반을 들고 서있는 간호원을 보고, 양박사는 말을 건넸다。
『네 큰일이에요。밥에다 약을 몰래 넣어 먹도록 하지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DDC를 복용하는 환자마다 말썽이니 걱정이야。』
『정미는 사춘기를 지내잖아요。한창 외모에 관심을 쏟을 때이니。그런데 그보다 더른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가족들의 문병도 거절하고 있거든요』
정미는 깊 간호원과 양 박사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선 숨었던 곳에서 나왔다。병원 건물의 오른쪽 구석에 빈 약상자를 쌓아두는 곳이 있었다。언젠가 정미는 이 상자들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었다。그 바로 앞을 지나 가면서도 정미가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정
칠룡이 훌쩍였다。
며칠 전 어머니와 언니의 대화 속에서 빠져 나온 정미는 어머니를 떠올렸다。그러나, 자기 때문에 언니가 불행해 진다는 생각은 떨여지지 않았다。차라리 자기가 식구들에게서 잊혀지길 바랬다。구차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동정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리고 가족에게 짐이 되면서까지。끝복 고개를 들었다。
2동건물이 눈에 들어왔다。그곳엔 이젠 치료할 수 없는 나 환자들만 있었다。간호원들과 의사들을 제외 하고는 출입을 금하고 있었다。그러나 한번 가보리라 생각했다。마침 간호원들과 의사들의 절심사 시간이었다。수위 아저씨의 눈을 피해 뒷쪽으로 돌아갔다。보일러실이 있었다。정미가 입원해 있는 병동과 같은 구조라면 보일러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을 것이다。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앉은 손잡이를 돌렸다。소리없이 문이 열렸다。다행히 그들을 직접 보고 싶었던 자신의 앞길을 보고 싶었다。
「202호」。노크도 없이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갔다。한 아주머니가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노란색 털쉐타였다。보고만 있어도 더위가 타 들었다。너무도 열심히어서 정미가 들어 온 줄도 모르고 있었다。
칙대위에서 흰 앞치마·장갑·마스크까지 하고, 대바늘을 움직이는 손은 무척 더였고 신을 소리가 들렸다。
빛을 발했다。
『그 아들이 뻐할까요? 몬돈댐에 걸린 어머니가 짜준 옷이라고 외면할 텐데요。』
가슴을 찌르는 듯한 말이였다。그러나, 장여사는 놀라지 않았고, 동요되지 않았다。
『난 그렇게 생각지 않아。』
계속 뜨개질을 하며 말을 했다。마스크에 일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 천천히 또박 또박 말을 이어갔다。
『난 내 아들에게 정성을 주고 싶은거란다。아들이 외면을 하더라도 내 마음을 전해 주고 싶어。내게 남아 있는 것 모두를 말이야。』
『글쎄요。차라리 아들에게서 빨리 잊혀지는 것, 그것이 정말 아들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요?』
『언젠가는 잊혀지겠지。하지만, 나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람되게 보내고 싶단다。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보다 나에겐 너무도 적은 시간이 남아있지。이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는 것이 나에겐 큰 행복이야。』
『누구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짧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生)은 자기 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가족에게 짐이 될텐데요?』
『누구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짧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生)은 자기 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가족에게 짐이 될텐데요?』
『정미야! 정미야!』
간호원이 따라서 나왔을 때에 정미는 시야(視野)에서 벌써 떠나 있었다。
『김 간호원。정미양이 또 약을 먹지 않했다던가?』
약 정반을 들고 서있는 간호원을 보고, 양박사는 말을 건넸다。
『네 큰일이에요。밥에다 약을 몰래 넣어 먹도록 하지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DDC를 복용하는 환자마다 말썽이니 걱정이야。』
『정미는 사춘기를 지내잖아요。한창 외모에 관심을 쏟을 때이니。그런데 그보다 더른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가족들의 문병도 거절하고 있거든요』
정미는 깊 간호원과 양 박사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선 숨었던 곳에서 나왔다。병원 건물의 오른쪽 구석에 빈 약상자를 쌓아두는 곳이 있었다。언젠가 정미는 이 상자들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었다。그 바로 앞을 지나 가면서도 정미가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정
칠룡이 훌쩍였다。
며칠 전 어머니와 언니의 대화 속에서 빠져 나온 정미는 어머니를 떠올렸다。그러나, 자기 때문에 언니가 불행해 진다는 생각은 떨여지지 않았다。차라리 자기가 식구들에게서 잊혀지길 바랬다。구차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동정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리고 가족에게 짐이 되면서까지。끝복 고개를 들었다。
2동건물이 눈에 들어왔다。그곳엔 이젠 치료할 수 없는 나 환자들만 있었다。간호원들과 의사들을 제외 하고는 출입을 금하고 있었다。그러나 한번 가보리라 생각했다。마침 간호원들과 의사들의 절심사 시간이었다。수위 아저씨의 눈을 피해 뒷쪽으로 돌아갔다。보일러실이 있었다。정미가 입원해 있는 병동과 같은 구조라면 보일러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을 것이다。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앉은 손잡이를 돌렸다。소리없이 문이 열렸다。다행히 그들을 직접 보고 싶었던 자신의 앞길을 보고 싶었다。
「202호」。노크도 없이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갔다。한 아주머니가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노란색 털쉐타였다。보고만 있어도 더위가 타 들었다。너무도 열심히어서 정미가 들어 온 줄도 모르고 있었다。
칙대위에서 흰 앞치마·장갑·마스크까지 하고, 대바늘을 움직이는 손은 무척 더였고 신을 소리가 들렸다。



누구라도 밤을 맞게된다。그러나 이밤을 잘 견딘자만이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정미는 이 고비를 넘겼다。어두운 밤을 지나 새로운 날에 대한 희망을 안은 未明의 시간을 껴안고 있는 것이다。

社 속

本社주최 전국고교 문학콩쿠르 수상자

◇詩 部
▲장 원 : 이상덕 (성동고 2년) 「등불」
▲우수1석 : 이춘대 (부산공고 2년) 「등불」
▲우수2석 : 서유리 (정의여고 1년) 「등불」
▲가작1석 : 이상진 (휘문고 3년) 「바람속에서」
▲가작2석 : 이미경 (마산성지여고 2년) 「바람속에서」

◇時調部
▲우수1석 : 이 영 (부산여고 1년) 「바람소리」
▲가작1석 : 강필성 (부산공고 3년) 「연등」

◇小說部
▲우수1석 : 김유리 (대전성모여고 3년) 「미명」
▲우수2석 : 최남정 (예산여고 2년) 「미명」
▲가작1석 : 박정희 (충북일신여고 3년) 「미명」
▲가작2석 : 임월미 (안양예고 3년) 「대합실」

◇隨筆部
▲장 원 : 임지희 (정의여고 2년) 「침묵」
▲우수1석 : 김혜숙 (숭의여고 1년) 「밤」
▲우수2석 : 전유미 (정의여고 2년) 「밤」
▲가작1석 : 이은주 (숭의여고 1년) 「밤」
▲가작2석 : 권승현 (경동고 3년) 「침묵」

◇단체우승 : 정의여고 문예반

개교 82주기념·동대신문 지령1천호 기념

경 부처님오신날 불기2532년 동국대학교 개교82주년 축

동국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보덕사 주지 정법인 대중일동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산96 ☎56-7790

보광사 주지 김무상 대중일동 신도일동 부산시 북구 덕천2동 산118 ☎332-6305

용화선원 선원장 松潭 대중일동 인천직할시 남부 주안동 16의113호 ☎(032) 82-6061

구룡사 주지 박지형 신도일동 구룡사·경납 창원시 ☎55-6359 소답동909 회관·경남 마산시 남성동142 한효빌딩2층 ☎2-7166 경남불교중앙회관 창원포교당

법해사 주지 이탄준 신도회장 박남덕 대중일동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6브록2노트 ☎514-0055 신도일동

분황사 주지 박도오 대중일동 경주시 구황동 313 ☎(056) 42-9922

전등사 조실 서운 주지장 윤대중일동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0349) 4-0125

반야사 (부설 금강유치원) 주지 이태구 대중일동 신도일동 부산시 동구 범일1동1386 ☎68-6237

내장사 주지 이향봉 대중일동 전북 정주시 내장동500 ☎②7965

적멸보궁 오대산 상원사 조실 고송 주지 삼보 기도법사 보답 원주 현풍 대중일동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32-6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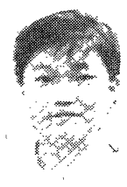
奉恩寺 조실 김자운 주회 주변 밀운 주지 전대 운명 총무 수명 대중일동 서울 강북구 삼성동 ☎(545) 1448

수락산 흥국사 녹야원 주지 황일면 신도회장 박평등심 대중일동 (녹야원) 977-4737 975-3307 남양주군 별내면 덕송리 331 ☎(0346) 65-8010

本社주최 제26회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 수상작

隨筆部 장원

침묵



임 지 희
〈정의여고 2년〉

나는 침묵을 사랑한다。살아 있는 생명의 진실한 침묵을 사랑한다。새벽이 밝아오는 거리, 아무도 나와 있지 않는 거리의 고요한 침묵을 사랑한다。나의 긴 잠을 깨우고 출렁이는 희망의 몸짓으로 일어서는 아침의 침묵은 뜨겁게 달궈져 있다。아름드리 솟아나는 햇살。내 긴 속눈썹에 내려앉아 이내 내 눈에 눈물을 고이게하는 햇살의 여린 침묵을 나는 사랑한다。이상을 좇아 나르던 갈매기 조나단의 날개짓같이, 자신의 모든 열정을 사르는 이의 침묵은 너무 아름답다。

박꽃 핀 뒷절의 트레블로 곡조를 사랑했던 어느 배우의 쓸쓸한 눈빛。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침묵은 그가 한 어떤 대사보다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의 속살이 된다。밤마다 외로운 숫사슴처럼 눈망울을 굴리며 별을 헤던 젊은 시인의 애잔한 침묵은, 밀물이 되고 순수한 삶의 詩로 빛난다。내가 사랑하는 벗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진실한 우정을 가슴 깊이 전해준다。내가 좋아하는 조각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침묵하고 있기에 신비롭고도 깊이 있는 조각으로 숨쉬는지도 모른다。

「생각하는 사람」을 볼때마다 나는 조각의 온몸에서 묻어나오는 깊은 고뇌와, 우리가 소유한 한 생의 작은 알맹이마다 스스로 침묵을 잉태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삶의 정상에 서면, 푸근한 은기와 더불어 침묵이 송유한, 우리가 수많은 몸짓과 언어로 다 챙우지 못한 삶의 빈자리를 느낀다。어쩌면 나는 이 빈 자리를 침묵하기 위해 사는것 은 아닐까? 밤다워 내 창가에 찾아드는 별과의 대화는침묵에서 침묵으로 이르는 끝없는 길이다。나는 그 길을 걸으며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아늑감과 길 끝에 있을 미지의 만남을 그려본다。

나부의 견고한 기둥과 하늘로 다가서는 줄기의 푸른 그리움은 비와 바람과 계절이 잉태한 침묵속에서 빛깔을 더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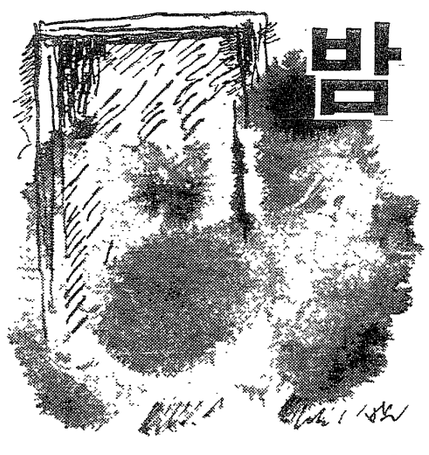
나의 침묵은 이별보다 더 외롭고, 시보다는 장유문은 몸짓을 갖고있다。나는 나의 침묵을 사랑한다。가끔씩 내가 터뜨리는 삶의 소리있는 웃음보다 우연히 조그만 삶의 기쁨을 알았을때 머금던 부드런 침묵의 미소를 영원히 머금고 싶다。내가 아름과 그리움으로 방황하고 슬퍼했을때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

『너의 그리움을 달래기는 힘들겠지만 더 큰 바장을 위해, 너는 실블테르처럼 알을 깨고 통의 침묵을 겪어야 해。친구는 나에게 침묵의 의미를 알려주었다。밤이 온갖 역경을 견디며 아침을 창조한듯이 우리의 진실한 삶을 빛내기 위해 침묵은 꼭 필요한 외로움일 거라고。내가 느끼는 많은 침묵의 덕어린는, 조금은 쓸쓸하고 조금은 외롭지만, 나의 삶을 채워주는 진실한 빛이 되는게 아닐까。내게 주어지는 他人의 침묵을 사랑하며, 바라볼 수 있는 햇살은 눈동자를 갖고 싶다。

침묵은 가장 진실한 삶의 모습이기에。

隨筆部 우수1석

밤



하루 24시간 중에 여투운 밤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척 고마운 일이다。밤은 다음날의 생활의 재생산 시간이 때문이다。또, 나 같은 꿈 많은 소녀들에게 보다 자신만의 생각과 시간을 가져 깊은 지적성장을 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이런밤을 우리는 너무도 모른 채 그저 재생활의 만족만을 느끼기 위해 뒤척으로 밀어 둔다。

우리는 밤하늘을 과연 얼마만큼 바라볼까? 많은 인간의 실수로 빛나는 별들의 자취는 하나씩 없어 졌고, 또한 인공적인 아름다움이 우리의 눈앞에 수없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밤이 실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는 적을것이다。

난 밤마다 창문을 열고 밤의 아름다움을 되도록 많이 찾는다。그리고 하늘을 맨 먼저 바라본다。흐린 날은 차분하고 고요한 마음을 볕이 많은 맑은 날은 밝은 빛을 기쁨을 느낀다。그러면서 문득 생각을 한다。

「왜 밤은 언두울까?」누가들으면 날 바보라 말할지도 모른다。물론 과학적으로 다지면 해답은 금방 나오겠지만 난 그런 객관적인 답을 원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왠지 모르게 사람의 마음과도 같은 그 무엇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그러다가 늘 결론은 마찬가지이다。다만 낮이 너무나 모든 장단점을 다 비추니 은화한 밤만은 모든 것의 허물을 덮어주려 줬은 알을 내리는가 보다라는 생각이다。세상의 악한 것이 이 어둠을 탐한다。할지라도 밤은 모두에게 공평한 어둠의 고요함을 줄 것이다。

서늘히 불을 스치는 밤바람을 한자락 잡아 볼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밤거리를 내려다 본다。한 두 사람의 행인들만이 어둠을 뚫고 어디론가 사라진다。아마도 그 사람들은 나처럼 밤을 좋아하는 사람 같다。비록 아닐 지라도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밤의 적막함이여, 넌 나의 영원한 세상이다。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너의 참신한 고요함만은 변치 말아다오。

밤의 적막함이여, 넌 나의 영원한 세상이다。모든것이 변할지라도 너의 참신한 고요함만은 변치 말아다오。

김 혜 숙
〈숭의여고 1년〉

隨筆部 우수1석

이 영

〈부안여고 1년〉

나는 때로 괜히 울적해지기도하고, 보지못할 그누구를 그리워하기도한다。사소한 갈등에 휩싸이면 일기를 쓰던가 받는 사람도 분명치않은 짧막한 글을 써본다。모든것이 잘들고 깊은 적막함만이 맴돈는 밤, 그것은 나로하여금 이런 그리움과 고독함에 조용히 눈감고 사색하는 자세를 갖게해준다。

내 어렸을적 밤은 왁리루 서웠던지。해만지면 툰밖에 나가지않고 또 할수없이 나가는 경우에는 내앙 옆에 지켜줄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했다。

그러나 지금은 밤이 너무도 사랑스럽다。

나만의 시간을 갖게 해 주고 보다 성숙한 내 자신을 만들어주는 밤, 조용히 보쏠내려 마란하고 활렵있는 나의 모든 삶이 생기 완전한 나의 모든 삶이 있는 것들은 밤의 지조가 있고 고요한 달빛 처럼 은은한 사색의 시간으로 빠져 든다。

난 낮의 활기도 좋아하지만 밤의 고요를 더 좋아한다。아마도 이젠 조용히 앉아 나짓한 목소리로 밤하늘의 별을 관봉으로 하여 좋아하는 시 귀절을 읊조릴 정도로 성숙했다고나 할까?

잔잔히 깔린 잠은 별들이영롱히 빛나는 밤, 귀뚜라미 소리 들리고 구름사이로 잠시잠깐 보이는 희미한 달이 떠있는 밤, 조용히 보쏠내려 마른의 침묵을 적셔 주는 밤。모두가 낭만적이고 사랑스런운밤이다。

「밤은 진실하고 아름답다。」

적어도 몇년 전까지는 이말이 사실이었으리라。그러나 황폐한 사회의 퇴폐적 풍조는 밤을 어지럽혀 놓기만 했다。고요하고 아름답기만 했던 밤은 어느새 사악뭔 마음이 작용하는 시간으로 변했고 시끄러운 시간이 되고 말았다。

번쩍이는 네온사인은 밤의 별을 하나 둘씩 잊게했고 사회의 못된 풍조는 밤을 더욱 무섭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아직 밤은 진실을 갖고있다고 생각한다。밤은 낮이 지나면 어김없이 찾아오고 절대에 깔렸던 어둠은 새벽의 먼동이 틀때마다 사라져 가는 변함없는 절서를 지킨다。이 절서가 깨이지않고 계속 되는한 밤은 그의 진실을 버리지 않을것이다。다만 우리인간이 밤을 진실되고 자연적으로 아름답게 돌아주어야 할것이다。

時調部 우수1석

바람소리

메아리 따라 가끔
뒷짐진 그 일월로

해묵은 인정 속에
빛살은 여물어서

하늘 연 싱싱한 나무

가슴으로 뇌인다。

가슴 속 늘 푸른꿈
울울이 엮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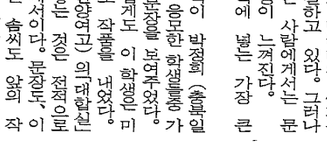
나무의 잔 가지만
흔들어 본 자리에

시비도 타협도 없는
중중함의 한 풍경

세월의 수렁길을
졸졸히 걷다 보니

꿋꿋한 마음으로
부퍼온 꿈의 자락。

추억의 가지 끝에서
등불 하나 밝힌다。



心사평

詩 부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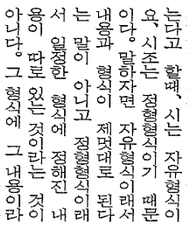
〈詩人·국교과교수〉
金 長 好

전체적인 수준은 예년에 비해 높은 것도 아니지만 낮은 것도 아니다。말하자면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예년에 비해 약간 색다르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그것은 말을 줄이고 아낀 작품보다 길게 늘이고 있는 작품이 많다는 점이다。굳이 이를 불이자면 산문화의 경향이라 할 수 있다。이런 경향의 시에도 물론 그나름의 장점이 있다。이를테면 시의 내용이 보다 풍부해지고 따라서 호흡도 그만큼 길어진다는 것이 그 장점이다。그러나 그때문에 알축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시가 많은 것은 아쉽다。

그리고 그에 부수되는 현상으로 설명적 경향을 띠고 있는 시도 또한 많다。이와함께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아쉬움은 뜻이 잘 통하지 않는 어렵운 표현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받드지 그래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왕이면 쉽게 쓰는 것이 좋다。그리고 쉽게 쓴다는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쓰는 사람이 충분히소화하고 있었는 뜻이기도 하다。

입선작으로 골라낸 5편은 내용과 표현이 비교적 잘 어울려 있다。앞으로 노력하면 개성적인 시를 쓸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그러나 선에 들지못한 작품중에도 내일을 기대해 볼만한 것이 많았다는 사실을 꼭 덧붙여두고 싶다。

時調 부 문



〈詩人·국교과교수〉
李 基 炯

시조도 시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조를 말할때, 시의 요람에다가 시조의 기법을 더하는 것이라고 우선 설명할 수 있다。왜냐하면 시와 시조를 구별짓는다고 할때, 시는 자유형식이요, 시조는 정형형식이기 때문이다。말하자면 자유형식이래서 내용과 형식이 제멋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고 정형형식이래서 일정한 형식에 정해진 내용이 따로 있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다。그 형식에 그 내용이라는 말인데, 시조의 정형을 추스리는 律格이란 바로 시조의 정형을 말하는 내용의 밑받침이 떠받들어 줄 때, 그 律格이 살아 오른다。

이번 백일장은 양에 있어서는 예년처럼 많지 않았지만, 그 질은 예년에 비해 훨씬 나아질 할 수밖에 없다。시조의 정형을 글짜수나 낱말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된다。시조의 정형이 무엇인가에 매달리지 말고, 시조의 정형은 어떤 것인가 하는 사제를 몸소 새기지 않으면 제 모습이 스며드는 정형은 아니다。

〈小說家·국교과교수〉
金 文 洙

〈小說家·국교과교수〉
韓 龍 煥

小說 부 문

제한된 시간 내에 한편의 소설을 써낸다는 일 자체가 무리일까。전반적으로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것이 응모작품들을 모두 읽고 난 후의 소감이였다。

김 유리 (대전 설모여고)의 「미몽」은 그런대로 과히 틀지 않은 소설적 서술을 보여주고 있다고 관단되어 우수 1석에 뽑았다。이야기의 발단과 전개에서 크게 무리를 하고 있지 않다。마무리도 무난하다。그러나 문장에 탄력이 부족하고 정서별도 불완전하다。

최남정 (여산여고)의 작품의 가장 큰 결함은 같은두 사람 허술한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몇군데의 삽화는 설득력을 결하고 있다。그러나 이 글을 쓴 사람에게서는 문학적 감수성이 느껴진다。

우수 2석에 넣는 가장 큰 이유이다。

가작 1석이 박정희 (울룩일신여고)는 응모한 학생들중 가장 성숙한 문장을 보여주었다。그러나 아쉽게도 이 학생은 미완성인 채로 작품을 내었다。잃월미 (안양여고) 의 대합실을 선에 넣은 것은 전적으로 격려의 뜻에서이다。문장도, 이야기를 끌어가는 솜씨도 앞의 작품들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

〈本社주간·국사교육과교수〉
林 英 正

〈수필가·본교대학원장〉
李 昌 培

〈문학평론가·인문대교수〉
李 來 秀

隨筆 부 문

제목이 얼마만큼 성숙된 의식을 요구하기 때문인지, 기대했던것만큼 좋은 작품을 볼 수 없었던 적이 유감스러웠다。대부분의 작품이 주제에 밀착된 글이 되지 못하여 억지로 이끌고 나갔다는 느낌을 받았다。또, 발상은 좋았으나 이를 이끌고 갈 의식이랄까 생각이 뒷받침되지 못해 흐지부지 끝나버리고만 작품도 많았다。

임선한 작품들은 발상의 신합과 문장력에서 돋보이는 작품들이다。모두 비슷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임지희의 「침묵」이 그중 우수하다고 생각되어 장원으로 뽑았다。메시지도 건실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장도 꽤 다듬어진 문장이었다。

김혜숙의 그리고, 작품에서는 생각의 정착을 그리고, 전부미의 작품에서는 진솔성을 높이 샀다。

이은주의 「밭」은 시작은 좋았으나 무리하게 장주를 채운 것 같다。권승현의 「침묵」의 경우도 시작에 비해 마무리가 좀 거칠다고 생각 되었다。

(경) 부처님오신날 불기2532년 동국대학교 개교82주년 (축)

동국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13교구본사 双溪寺 주지 오고산 포교총무 김석상 포교재무 노이묘 교무무무 유원정 포교재무 무상명 교무무무 김덕완 포교총무 무명수 결남하동군화개면운수리208번지 (0595) ㉝1901~9

제14교구본사 梵魚寺 주선 덕지 포교재교총기 포교재교무무획 대교교무무획 (051) ㉝7122~5 중종화원성덕영 동윤량우오륜환 교호 일

제15교구본사 영축총림 通度寺 방장 月下 주지 圓明 대중일동 (0523) ㉜7181

제16교구본사 孤雲寺 주지 송근일 대중일동 (0576) ㉝2224

제17교구본사 金山寺 주지 송월주 대중일동 (0658) ㊽4441~5 전통회관⑤3497

제18교구본사 白羊寺 조실 이서옹 선원장 김천장 주지 조학능 주지실 (0685) ②7412 종무소 〃 ②7502

제19교구본사 華嚴寺 주지 최종원 총무 명선 교무 종덕 재무 완령 규정 수 주지실 (0664) 21-4150 종무소 〃 21-4152

제21교구본사 조계총림 松廣寺 방장 미산일각 주지 현호 대중일동 (0661) ㊽2130~3

제22교구본사 大興寺 주지 임원두 대중일동 (0634) ㉓5501 ②5588

제23교구본사 觀音寺 주조 지실 총무 규정 교무 신도회장 관음사부설 신규 연화유치원 현조석석 상진도종 홍학림호 (064) ㉒6830 ㉒2829 제주시 아라동387번지 ㉒4821

제24교구본사 禪雲寺 주지 태허 대중일동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500 (0677) ㊽16017

제25교구본사 奉先寺 대중일동 지로번호 : 7516445 대체구좌 : 1034401317185929 (0346) ㊽7701~2

"三位一体"의 統一論을 批判한다

1. 序論

I. 問題의 提起

오늘날 南韓社會에서 統一問題는 가장 重要한 國家的 課題로 擡頭되고 있다. 이는 統一問題가 南韓社會의 모든 問題를 解決하는 핵심적 고리이기 때문이다. 統一問題가 南韓社會의 모든 問題를 解決하는 핵심적 고리가 되는 것은 南韓社會의 모든 問題가 統一問題와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南韓社會의 모든 問題가 統一問題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南韓社會의 모든 問題가 南韓社會의 分斷狀況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南韓社會의 分斷狀況은 南韓社會의 모든 問題를 統一問題와 연관시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南韓社會의 모든 問題가 統一問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統一問題가 南韓社會의 모든 問題를 解決하는 핵심적 고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南韓社會의 모든 問題가 統一問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統一問題가 南韓社會의 모든 問題를 解決하는 핵심적 고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南韓社會의 모든 問題가 統一問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統一問題가 南韓社會의 모든 問題를 解決하는 핵심적 고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II. 硏究의 目的과 範圍

이 글의 目的은 南韓社會의 統一論議를 批判하는 것이다. 南韓社會의 統一論議를 批判하는 것은 南韓社會의 統一論議가 南韓社會의 모든 問題를 解決하는 핵심적 고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南韓社會의 統一論議를 批判하는 것은 南韓社會의 統一論議가 南韓社會의 모든 問題를 解決하는 핵심적 고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南韓社會의 統一論議를 批判하는 것은 南韓社會의 統一論議가 南韓社會의 모든 問題를 解決하는 핵심적 고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本論

I. 統一論의 類型

南韓社會의 統一論議는 크게 세 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南韓社會의 統一論議는 크게 세 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南韓社會의 統一論議는 크게 세 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II. 統一論의 批判

南韓社會의 統一論議는 크게 세 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南韓社會의 統一論議는 크게 세 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南韓社會의 統一論議는 크게 세 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3. 結論

南韓社會의 統一論議는 크게 세 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南韓社會의 統一論議는 크게 세 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南韓社會의 統一論議는 크게 세 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筆者紹介〉 ○○○ 1955年 ○○生. ○○大學校 ○○學科 卒業. ○○大學校 大學院 ○○學科 碩士課程 修了. ○○大學校 大學院 ○○學科 博士課程 在學中. ○○○

한국 의회정치 40년의 회고와 문제점을 진단한다

政治不在가 반복된 悲運의 역사

○… 올해로 의회정치가 시작된지 40년을 맞는다。이번 제13대…○
○…국회는 국정감사권의 신설등 그 기능면에서 상당히 강화됐…○
○…으며 특히 지난 4·26 국회의원총선에서 「與小野大」라는 결과…○
○…가 나와 앞으로의 국회모습이 예전의 해절부의 시녀노릇이…○
○…나 하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띨 전망이다。이에…○
○…의회정치 40년을 되돌아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편집자註〉…○

Ⅰ、議政40년의 回顧

1948년5월10일 총선거 후 제헌國會가 구성된 후 네차례의 헌정중단과 아홉차례의 헌법이 개정되어 왔었지만 그런대로 올해 5월로 40년이라는 의회정치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특히 지난 4월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지난 40년간에 걸친 의회정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이며 사실 40년의 기간이란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다。

우리의 議政40년을 회고해보면 정치발전의 제도정착은 물론 정치문화 형성의 기본조건 마저도 조성될수없는 정치부재의 현상이 반복된 비운의 정치사였고 이로 인하여 국회운영은 되풀이 되는 정국적 불안정과 변혁으로 인하여 정치시회내의 제갈등과 대립을 합의에따라 통합하지 못하고 국회공전이라는 비정상적인 정치현상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았아보는 것이다。

崔 嶢 燦
<사회과학대대우교수·의회제도>

상을 보면 세계어느나라 의사당과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건물과 내부시설을 갖추고 있을뿐아니라 의원회관과 도서관등의 신축, 그리고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보수와 각종 혜택도 결코 선진국 어느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국회의 내실에 있어서는 의회정치가 훌륭하게 운영되지 못하고있는가? 이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다음 몇가지를 지적코자한다。

첫째, 정권의 평화적교체가 이행되지 못한데 있었다。한국의 정치는 항상 소수 엘리트(elite)에 의하여 결정됨으로써 국민과 정당은 무시된채 지도자 개인중배체제를 구축하여 권위주의로서 국민과 국회에 군림하였고 집권자는 항상 물리적 힘에 의하여 불합리와 독선적 결정과 정책을 정당한 것으로 조작하였다。이에 따라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도, 전체적 유신체제도, 정치의 행정화도 모두 이나라 역사의 불가피성으로 합리화시키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특히 군부세력의 一方的 팽창은 민간세력의 상대적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軍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조장했을 뿐아니라 만성화시키고 말았다。한편 집권여당의 원들은 국민의 희망과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집권고위층에만 아첨을 하며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편이 많은데다가 집권자는 정치권력 대신에 多數橫暴에만 의존하였던 것이다。

둘째, 近代的 政黨의 不確立과 政黨의 寡頭化이다。정당에는 국가통치에 관한 뚜렷한 철학이 있어야하고 확고한 이념과 이를 추진하는 구체적인 발법론및 실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근대정당의 성립요소이며, 이러한 기본요소를 갖추지 못할때에는 전근대적 봉당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우리나라 40년의 정치사를 회고하면 그 대부분이 봉당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왜냐하면 자유정권만해도 당시의 당은 지도자들은 「민족의 독립」「정당정치」「의회정치」를 구두선처럼 외쳤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자기자신들의 이익에만 편중된것으로 봐야함으로 급일 국가정책의 대부분은 행정부에서 發案 審議 조정되고 있고 국회는 그것을 통과시키는 一通法機關으로 전락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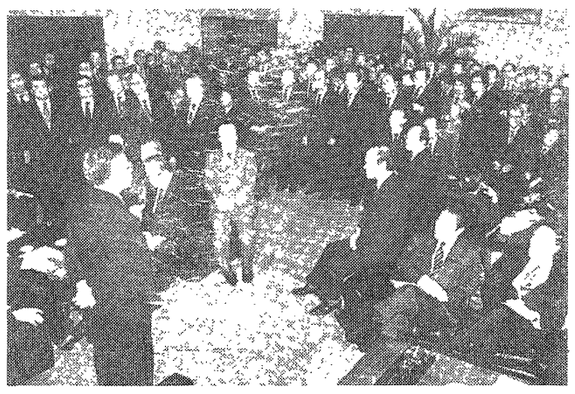
또한 국회의 정부활동에 대한 국정감사기능과 국정조사권 발동에 있어서도 우리의 경우는 행정부의 활동을 가급적 비밀로 하고 국가활동을 監視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국회나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데다가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통제를 강력히 받고있기 때문에 국회의원개개인이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그리고 국정조사권의 발동제만 하더라도 정치·경제·사회·노사문제등 大型事件이 일어나 있었음에도 한번도 발동하지 못한 것은 여당의 반대때문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국회는 마치 정치토론을 하지않는 비정치적기구로 전락된 것과 다름이 없게되었고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신분은 저하될수밖에 없게되었다。한편 행정부의 정책남발자들은 국회의원의 견해를 무시하게되고 또 국회의 국정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될수밖에 없게되어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 입법기관, 정부감시기관이라는 헌법상의 조문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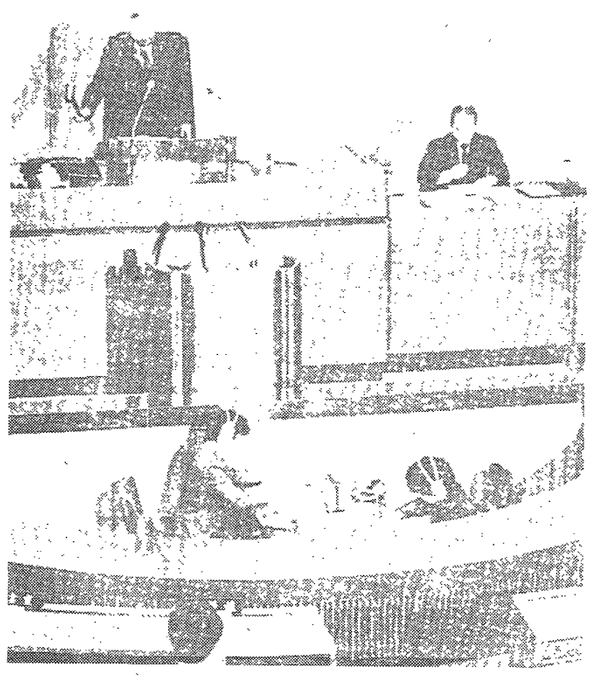
Ⅲ、國會 運營上의 問題 解決策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40년의 의회정치는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되어 국민의 기대와 여망과 이익과는 거리가 먼 空轉의 조직면에 있어서도 국민의 조직에 불과했다。

따라서 금후 우리나라의 정당과 지도자들은 먼저 근대적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본질적으로 충요하고 정당조직과정에 있어서도 우선 朋黨性을 불식할때에 국회기능도 회복할수 있게 될 것이다。그리고 오늘날의 의회정치는 정당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정당의 조직이 「피라밋(Pyramid)」型으로 寡頭化됨에따라 정당의 기능 역시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특히 정당에 의한 국회의원들의 통제는 黨幹部에 대한 복종과 충성심을 강요함으로써 국회에서의 활동은 국민의사가 소재본단도 黨幹部 생각이 곧바로 당론으로 결정되기도 하였다。이러한 당론결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상명하달식」에 의해 당론결정이 이루어지기 일수였다。



그동안의 정당내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상명하달식」에 의해 당론결정이 이루어지기 일수였다。



우리의 主體로서 80년10월 국회와 정당은 시시대 새정치를 이룩해야하는 反民主的요소를 깨끗이 청산해야한다。사진은 立法會議구성장면。

정치법칙 되풀이로 공전현상이 속출

黨幹部 생각이 곧바로 당론으로 결정되기도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정국을 더욱 硬直시킬 뿐 아니라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자율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국회와 의원들의 自律性問題는 政黨(與·野黨)의 권위주의적 지도체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與·野議員들은 정책결정과정의 최고지도자선출과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각자의 자율성과 부재출법안이 오히려 많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 한국과 같이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가 내재하고 있는 곳에서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민의의 수렴과 국정에의 반영을 위해서는 의원발의법안이 양적으로 많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가 自律性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立法過程에 있어서 의원들의 행사가 있다할지라도 정책의 복잡성과 전문성에 대응할만한 능력이 행정부보다 부족하고 또 정책을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지식·소유자를 소속상임위원회에 적절히 배정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 개회일수를 대폭 늘리고 (정기국회 1백50일, 임시국회 90일정도) 발언시간의 연장과 TV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회의공개등으로 국민과 함께 국가정책을 심의토의하는 제도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모든 조건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회참모진(전문위원수증가,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등을 강화하는 한편 의원들이 국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의 겸직제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또한 위원회에서의 안건심사(일반법안, 예산, 결산안심사 등)를 하고 있는것을 보면 그 심사기간이 너무 짧아서 개정법률안을 속출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법안심사기간제를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특히 예산 및 결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말고 그것에 대한 조정권한을 해당위원회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가지 고려할 것은 최근 세계각국의 동향을 보면 국회에 제출되는 청원건수가 일약 증가현상에 있는데 (日本의 경우 만 보더라도 1978년—1985년 사이에 兩院에 제출된 건수가 도합 11만3천43건에 달했다) 이에 대한 심사시간이 역시 짧아서 청원에 대한 실제적 조사도 없이 행정부에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청원건수가 증가되는 원인은 이익집단의 수가 증가되는 한편 국회의 입법기능이 약화또는 상실된데 있다 할 것이다。그 이유야 어쨌든간에 국회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교량적 역할로써 행정을 위한 정책을 지양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 청원제도에 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고 이 청원만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회가 이 청원을 성실하게 취급처리할때에 국민의 對國會관심도는 높아질 것이며 행정부의 부정부패를 제거 또는 미연방지하는 방법으로 될것이다。

끝으로 국회는 하나의 정치적 엘리트의 집단이 되어야하고 제6공화국의 새주역들은 10년후, 20년후의 비전(Vision)을 제시해야할 것이다。국회가 정치적 엘리트집단이 되지 못할때에는 헌법상 제아무리 발달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가 진실한 정치적 엘리트集團이 되는데 있어서는 국회의원 상호간의 연대의식과 상호간의 정책적인 코뮤니케이션(Communication) 그리고 의원 각자의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議會政治는 입법기능의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 자율권을 확보해야한다。국회가 입법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논자에 따라서는 의원발의법안보다 정부제출법안이 우선되는 것이며 특히 대통령제하에서는 행정부에 대하여 협조·지도를 하는데 있어서도 국회자체로서의 예지가 있어야하고 또 끊임없는 연구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한다。

그리고 第6共和國의 새주역들이 우리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위대한 보통사람시대를 만든다。GNP를 5천달러로 올리겠다」는 등등의 國號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매료(魅了)하고 국민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할 뿐 아니라 2천년의 세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그러한 세계에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느냐는 巨視的인 정책의 수립이 앞서야 할것이다。

"TV등 대중매체 통한 회의공개로 국민과 함께 정책심의해야"

(경) 부처님오신날 불기2532년 동국대학교 개교82주년 (축)

동국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직할교구 曹溪寺 주지 진현근 신도회 일동 관음회 일동 대중 일동 (732) 2115 출로구 견지동 45번지

제2교구본사 龍珠寺 주지 서대승 총무 자정스님 재무 정광용 교무 성도성 규정 김무승 신도회장 정각실 (033) 0040

제3교구본사 神興寺 주지 김혜법 대중 일동 (0392) 7044·7053

제4교구본사 五台山 月精寺 주지 조실 고송암 주지 김도명 대중 일동 (033) 6615

제5교구본사 法住寺 주지 유월탄 부주지 지원현 교무 각성스님 재무 무승천 규정 무무종 (0433) 23615 안천원

제6교구본사 麻谷寺 주지 서일승 총무 성도성 교무 학인스님 재정 무무무 규정 재교총 대중 주지실 (0416) 53-8004·8012 동윤원일운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修德寺 방장 재교총주 무무무지장 지지법설원 대중 일동 (0458) 37-6565 37-6622 운만조정담

제8교구본사 直指寺 조실 강주희 주지 주지스님 대중 일동 (0547) 30-6174 연혜오관 녹원창응

제9교구본사 桐華寺 주지 백혜촌 대중 일동 (053) 954-0101

제10교구본사 銀海寺 주지 최규필 총무 부주지 겸 교무 팽정오 재무 강진담 대중 일동 (0563) 주지실 종무실 31532 31220

제11교구본사 佛國寺 조실 월산스님 부주지 종림스님 총무 부주지 종원스님 교무 천불스님 재무 초삼스님 (056) 31 9913

제12교구본사 해인총림 海印寺 방장 李性徹 주지 법전스님 대중 일동 (059) 37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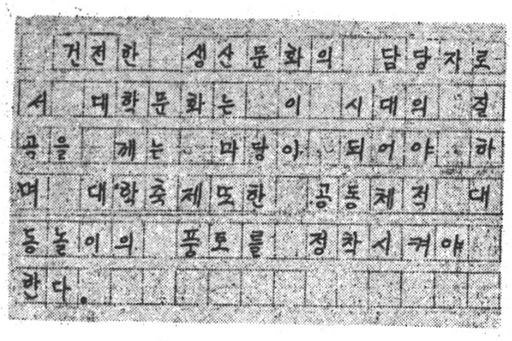
목멱대동제의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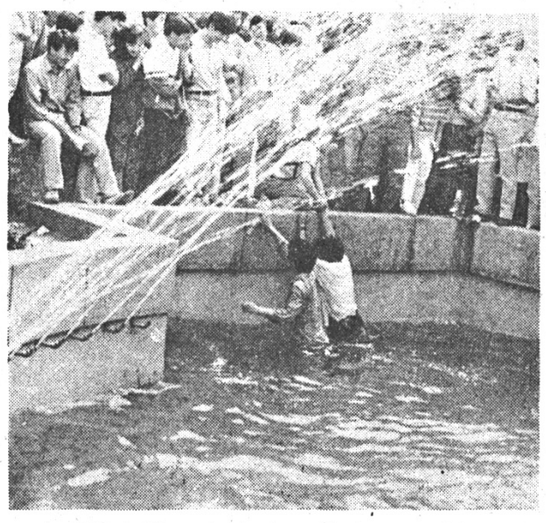
"함께 어우러지는 한 마당에서"

"東岳이여, 한라의 유채꽃이여! 찢겨진 산하넘어 백두의 천지까지 통일로 물결쳐라!"

"한잔 들고 가게나."

시원한 막걸리 한잔 들고 놉시다。안주는 自主파전·民主노가리, 원하시는거라면 뭐든지。한잔은 통일되는 조국을 위하여, 또 한잔은 미리알고 정하신 그분을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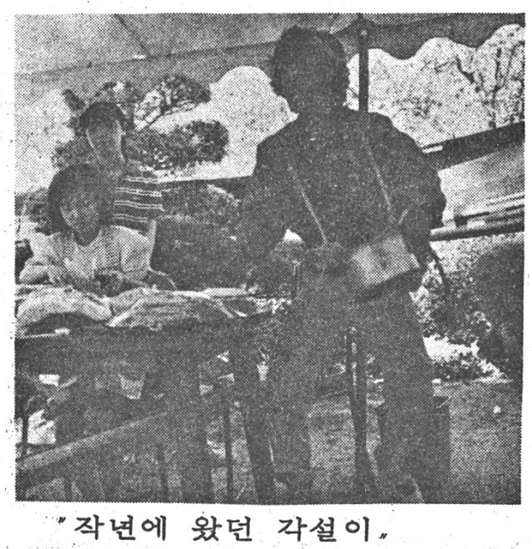


"통쾌한 분수욕(噴水浴)"

이 험난한 망망대해에서 날 건져줄 놈, 누구없소? 아직 젊은데 용달귀신이야 될 수 없지않소。이땅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살아야 한단 말이오。인생은 苦海라지만…

"경사났네."

우리의 남한일보, 북한순報에게 시집을…。검은머리가 파뿌리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떡두꺼비같은 통일자식 낳아 오래도록 다복하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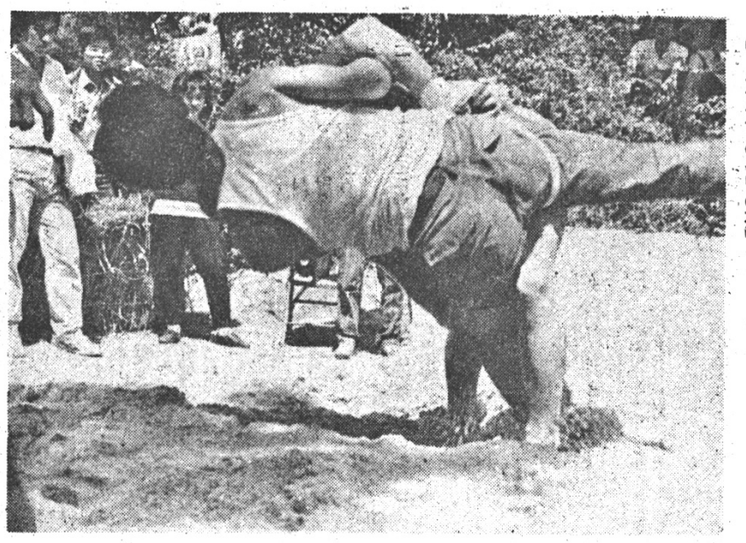


"작년에 왔던 각설이"

작년에 왔던 각설이。등악에서 열리는 통일한마당 잔치에 참석코자 죽지도않고 또왔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것 없다더니… —각설이曰—

"물고문 당하는 살인마"

어떠냐, 내 물맛이。짤물놀리던 솜씨로 열심히 적응시켜 버렸지롱。너도 한번 물고문 당해보라。



"덤빌테면 덤벼라"

권투선 천하장사 무쇠롤라는…。그러나 그는 그렇게 넘어갔도다。으싸으싸, 아무나 이겨라。

일곱걸음의 뜻

2천5백년 보다도 더 오랜 옛날에 인도 카필라국의 룸비니 동산에서 큰경사가 일어났었다。그 나라 국왕은 정반왕이고 온 나라안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태자가 태어난것이었다。

정반왕의 아들로 摩耶왕후의 몸에서 출생한 그 왕자는, 태어나자 마자 곧 일곱 걸음 (七步) 을 걸었다고한다。갓태어난 아기가 일곱 발자국을 떼어놓았다는 것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다는 이야기의 함께 사실일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오른쪽 옆구리 (右脇)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역사적 사실 이상의 진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당시 인도 사람들의 출생관념에 따라 왕족이 겨드랑 밑이나 배꼽에서 태어난다고 믿었던 것과 태자의 우협탄생은 같은 것이며, 태어나면서 곧바로 일곱 발걸음을 걸었다는 것에서 그의 생애가 함축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의 생애는 火宅의 三界를 뛰도는 輪廻에서 벗어나는 길을 얻었고, 또 최상 행복의 그 길을, 세상에 가르쳐 보인 것으로 일관하였다。그래서 그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으로서 불멸의 빛을 발하고있다。

일곱 발자욱의 7數는 바로 윤회에서의 벗어남 (解脫) 을 뜻하는 숫자이다。윤회는 六道 (天·人·阿修羅·畜生·餓鬼·地獄)의 끝없는 뱀돌이다。이 여섯 갈래 (六道·六趣) 의 윤회에서 한 발걸음 성큼 벗어난 것이 곧 해탈이기 때문이다。

그 날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던 그 아기는 자라

金 煐 泰
〈불교대교수·불교사학〉

서 출가 수도하여 성불하였다。그리하여 불타는 三界 (欲界·色界·無色界) 의 울타리 안을 영영 벗어나 버렸다。여섯 걸음 (六道) 에서 한 발걸음을 더 벗어난 일곱 걸음 (解脫의 길) 을 걸었던 것이다。

일곱 발걸음을 걸음마다 진흙에 물들지 않는 고운 연꽃이 받침 놓았다는, 그 뭇 남의 讚佛頌들은, 부처님의 삶을 이룬 그 아기의 거룩한 탄생을 읊은 信仰文學의 진실한 표현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

東岳路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오라"

「분단상황 고착하는 미국놈들 몰아내자!」「공동올림픽 개최하여 조국통일 앞당기자!」지난19일 오후 1시, 불상앞。

무르익어가는 축제의 둘째날, 주위의 흥청거림에 아랑곳없이 「故조성만烈士 할복투신함거 추모·계승제」가 열리고 있었다。

지난15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양심수 전원석방 축구대회」에서 조국의 자주통일과 민주쟁취를 부르짖으며 자신의 배를 가르고 투신함으로써 이땅의 서른세번째공식 (?) 열사가 된 서울대생 조성만군의 장례식이 거행되면 바로 그날이었다。

『열사여, 당신의 죽음앞에 살아 선 우리는 눈물보다 분노를, 하루보다는 더욱 뜨거운 투쟁의 결의를 다집니다。잠시 묵어서 우리 4천만 민중의 가슴에 머무르는 영원한 삶을 택한 그대, 마침내 그날 민족통일·민중해방의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누구에게도 당신를 빼앗기지 않겠읍니다』

거짓과 모순으로 점철된 이땅, 제국과 매판·독재의 억압·착취가 끊날 줄 모르는 미칠듯한 어제날을 가슴저미는 노여움으로 불살라간 그 꽃넋앞에선 뜨거운 젊음도 차마 눈물을 흘릴 수 없었다。그러나 한편 그를 맞아간 기만과 배신, 그 찌꺼기들은 동악안에서도 구역질나는 숨을 쉬고 있었으니, 형제의 넋이 목멱을 뱀돌던 그때, 동악의 某所에서는 그를 죽게 한 양키귀신의 노랫가락에 몸을 흔들고—그것도 강의실에서—있었던 것이다。

형제를, 친구를 맞아간 철책선은 비단 휴전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이제는 너와 내가 함께 이땅의 마지막 열사되어 백두에서 한라까지 흠뻑 어우러져 보자던 동악의 『大同祭』에도 이미 금은 그어져 있었던 것이다。

억누름을, 빼앗김을, 나뉘어짐을 깨뜨리려는 이땅 청년학도의 원한사무친 결의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 하리라。나뉘고 나뉠수록 하나되려는 몸부림으로 더욱 격한 춤을 추어야 하리라。

우리의 투쟁은 하나됨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를위해 우리의 문제인식 또한 하나로서 공유돼야 하는것 이다。

「아! 우리의 소원은통일, 꿈에도 소원은통일」

<이종석 記者>

공동연대 투쟁결의!!

구내서점 직영화를 추진하는 우리의 입장

서울지역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학내 임여의 학내 재투자라는 목적과 학문, 사상의 자유쟁취, 그리고 학우들의 경제적 부담을 점감시키기 위하여 학내에 존재하는 모든 수익사업을 순차적으로 직영화하기로 하였읍니다。

이는 학원 공동체를 실현하려는 협동조합결성을 위한 작업입니다。그러나 우리의 작업을 저해하는 몇가지 요소가 상존하고 있읍니다。그 대표적인 예로 현재의 각 출판업계는 철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으며 직영서점이나 서적할인판매를 실시하는 서점에는 출판물을 공급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러한 요소가 척결되지 않는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속에서 우리는 항상 객체일수밖에 없고, 자본주의의 수탈의 대상이 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서울지역 학생 복지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구내서점 직영화를 가로막는 전국 출판 문화협회는 직영서점에 출판물을 공급하라!

—구내서점은 영리업소가 될수 없다。

모든 구내서점은 즉시 할인판매를 실시하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비협조적인 출판사및 구내서점에 대해서는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의 이름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감로신학대학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상명여자대학교 서울산업대학
서강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항공대학
홍익대학교

서울지역학생복지위원회
연합건설준비위원회

문화단신

「오장군…」공연

극단 미추에서는 박조열作·손진책연출의 「오장군의 발톱」을 오는 6월3일부터 9일까지 매일 오후4시30분·7시30분 두차례씩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이 작품은 그동안 공연윤리심의위원회에 의해 공연이 불허되었던 작품으로 바보스러우리만큼 순박한 농부의 아들 오장군이란 이름의 이등병이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는가운데 커다란 전공을 세우고 적측의 경의를 받으며 전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한 인간의 비극을 담담하게 펼쳐보임으로써, 조직사회속에서 소모품으로 전락하는 비극의 깊이를 진하게 전해주는 작가 박조열씨의 대표작이다。공연문의는 (743—7828)극단 사무실로。

「구로동연가」공연

한국음악극연구소와 극단 연우무대에서는 창작노래극 「구로동연가」를 오는 6월5일부터 16일까지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오후4시30분·7시30분 두차례씩 공연한다。

다양한 양식의 무대공연물을 만들고자 음악과 연극을 접맥시켜 만든 이 작품은 뿌리뽑혀 공단생활을 하는 근로자들의 외로움과 고통을 통하여 그들의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이루어질수 있는 사회를 그려내고 있다。

동악広場

게시판

통일논문모집

국토통일원에서는 남북한교류협력방안 모색, 통일조국과 민족공동체의 이념, 서울올림픽과 남북한 관계전망, 중소개방화정책과 한반도중 하나를 주제로 9월10일까지 통일논문을 현상모집한다。자세한 문의는 국토통일원으로 (전화 720—2147) 하면된다。

작은영화상영

연극영화학과에서는 총학생회·예술대 학생회 후원으로 제26회 졸업작품 발표회 및 중앙대·한양대·서울예전 연극영화과 우수작품들을 오는 25일까지 오후 4시·7시 두차례에 걸쳐 본관 연영과 소극장에서 상영한다。

제1기 민족여성교 개강

한국불교사회교육원주최 제1기민족여성학교가 오는 25일부터 한달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7시와 토요일오후4시에 한국불교사회교육원 강당에서 있게된다。참가비는 매기별 1만4천원이며, 접수는 354—5484로 하면된다。(10명이상 단체신청할 경우 참가비 50% 할인)

문학아카데미

본격문예 창작연구를 위한 모임인 문학아카데미에서는 창작 실기를 희망하거나, 문학세계에 관심을 가진 성인남녀를 모집하고 있다。

전담 문인과 초청 문인으로 이루어져 세미나식 작품 합평및 강평으로 진행된 이 모임의 입회비는 1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764—5057로 하면된다。

故 이한열추모문학상 원고모집

연세대 총학생회에서는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국민 대투쟁을 계승하고 故이한열 열사의 정신을 기리기위한 추모문학상을 제정하여 오는 6월2일까지 소설, 수필, 체험수기를 매수에 제한없이 모집한다。

민족통일 강연회

대종교·대학생회는 오는26일 오후1시 「민족사적 관심에서 본 학생운동의 방향」이라는 주제아래 이재오 (서울민중 연합회의장) 강사를 초청해 외대 삼민광장에서 강연회를 갖는다。

취업정보

국사교육과 체육대회

국사교육학과는 오는 6월5일 오전10시에 사대앞에서 동문체육대회를 갖는다。동문들은 필히 참석하기 바랍니다。

동대 미전

미술학과에서는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한국화 및 불교 고미술전을 갖고 26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 서양화 및 조소전을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혜화관 2층 전시장에서 개최한다。

법학과임시총회

법학과 2학년 학생들은 오는 25일 오전11시에 동국관 (M306)에서 법대문제와 전방입소문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갖는다。

야총 원고모집

야간강좌총학생회에서는 5월중 발간예정인 신문에 실릴 시·소설 (단편 : 40~50매) 수필·꽁트·소설 (12~15매) 부문의 글을 모집하며, 채택된 작품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학술 세미나

미술학과 학생회주최 88동국예술제 학술세미나가 「현대미술의 반성적이해」를 주제로 오는 25일 오후5시 동국관L101강의실에서 열린다。강사로는 미술평론가 박용숙씨가 나온다。

교육학과토론회

교육학과 학생회에서는 오는 26일 오후5시 학회실에서 「전방입소·문무대입소의 본질」이라는 안건아래 토론회를 갖는다。

서클활동

서도부정기총회

서도부에서는 오는 27일 오후5시 학생세미나실에서 회기결산과 제11대회장선출을 목적으로 정기총회를 갖는다。

호우회 정기총회

경주캠퍼스 호우회는 차기 회장단 선출및 총결산 보고를 안건으로 한 정기총회를 오는 26일 오후5시 A306에서 갖는다。

동문원리

구로·금옥동문회

구로·금옥동문회에서는 오는 26일 5시에 학생회관앞에서 전방입소환송을 위한 동문회를 갖는다。(회비는 3천원+α)

영락동문회

영락고 동문회에서는 오는 27일 오후 5시 친목도모를 위해 불상앞에서 모임을 갖는다。

성동동문회

성동고등문회에서는 오는 27일 오후5시 카니발 안건아래 다향관앞에서 모임을 갖는다。

검정고시동문 체육대회

검정고시동문회는 오는 29일 국민대 대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갖는다。회비는 2천원。

경신 동문회

경신고등문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要。오는 26일 오후5시 A207에서 회비 4천원도 지참。

대건동문회

경주캠퍼스 대구 대건고등문회 정기총회및 체육대회를 오는26일 본교 대운동장에서 개최하오니 동문여러분들의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보령향우회

보령향우회에서는 오는 27일 오후5시에 친목도모를 위해 불상앞에서 모임을 갖는다。

단결의 깃발 내릴 수 없다

또다시 5월의 민족광장에 모여

18일현재로 예정되었던 「광주영령의 추모제및 위령비 제막식」이 학생들의 참여도 부족하였거니와 무엇보다도 위령비가 춘비되지 못한 이유로 무산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 18일 교내일원에서 치뤄져 전통장례의식을 재현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5·18과 앞서간 민주열사의 뜻을 이어받자는 의도에서 행해져 많은 관심을 끌었다.

5시반 신명나는 춤사위와 사물놀이로 막을 연 광주민중항쟁 8주년 기념 마당극 「넋고을 아리랑」은 광주학살의 원흉들을 그려놓은 천을 불사르고, 연기자들이 온몸으로 춤사위를 하며 내뱉었던 언어를 관객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일수 있도록 무관하게 분주대 주변에서 소란을 떨었던 일부 관람객의 태도가 몹시 아쉬웠던 자리였다.

문자그대로 「人山人海」를 이룬 학생인파속에서 치러진 「백기완선생조청 조국통일강연회」는 광주민중항쟁 8주기의 참뜻을 되새기고 광주학살의 주범을 명백히 가려냄과 함께 의견이 모아졌다.

백기완선생은 강연에서 『날복한 문제는 사상·언론·학문의 자유를 회복한 상태에서 실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재 이땅의 노동자·농민·소시민이 총3천만인데 이들 민중이 스스로 해방되는 것이 곧 통일을 이루는 길』이라고 주장하고는 『자각과 투쟁으로 민중의 고통을 깨쳐나가야 할것』이라고 현 군사정권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큰 틀을 토해 학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5·18광주항쟁 8주기를 맞아 오후7시부터 전개된 실천대회는 3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 어느때보다 결연한 의지로 진행되었는데 광주민중항쟁 상황마당극을 마친 학생들은 속공(?)으로 후문돌파를 시도, 성공했으나 전경들의 최루탄 난사에 막혀 주차장 부근에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맞섰다. 그러나 목정아파트 쪽에서 갑자기 몰려난 30여명의 전경들로 인해 후문이 막혀 무기부족(?)에 쫓긴 나머지 주차장 담을 부너뜨려 대처하는등 기민하게 대처하기도 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어우러져

19일 1시에 계획되었던 「민주·포졸 발대식」이 경상대학생회 주최로 12시에 동국관 일구에서 열렸다.

발대식에서 포졸 차림의 학생들은 상의를 하늘색 셔츠로 통일하고 노란 마후라를 둘러 포졸임을 표시했는데 이들은 전전하고 밝은 분위기의 축제로 이를편는 의도로 무거가 주점 철폐등 부정축결을 선언하고 출범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龍頭蛇尾격에 그쳤다.

이어서 「진군!동서남북」이 오후 2시경부터 진행되어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고조시키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확기시켰다.

먼저 날씨와 앞풀이사에 밀려 2시간이나 늦게 시작된 「통일을 위한 남북한 모의 연석회의」는 현 안문제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통일을 다뤄 소재의 신선미가 돋보인작품.

곧과대 주최의 「동국인 옹벌대회」는 예상과는 달리 함우들의 많은 관심을 끌지못하고 볼상하여 치뤄졌고 매년 축제때면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통일축구대회」가 올해엔 단 2팀만의 초출한 (?) 무대로 마련, 행사자체가 실종위기에 달기도했다.

3시부터 민중장터에서 펼쳐질 널뛰기 예선전이 벌여졌다. 사람들의 흥분과 기대와는 달리 볼참자가 많아 경기없이 4강이나 혹은 결승까지 진출하는 희극이 벌어지기도.

민족통일회주최 「조정래의 문학이야기」는 태백산맥의 작자인 조정래씨를 초청, 작가의 작품세계등을 토론했으나 초청자가 민망할 정도로 참여학생이 극소수.

「동국예술인의 밤」이 예술패 주최로 오후6시 8백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체육관에서 열려 상황을 이뤘다.

특히 민주열사추모노래, 헤비메탈음악, 국악연주, 속대체육과 여성육체미등은 동국인의 시선(?)을 뜨겁게 만들기도 했다.

「동국문화회 주최의 「익명시 낭송회」는 익명시, 재학생시, 광주항쟁 민중시로 나뉘어 낭송회를 가졌는데 생활 현장속에서 우러나온 이름없는 작가의 절절한 음성, 자유를 향해 외치는 참언어로 참석한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다.

해방의 함성으로 이어라 한반도를

20일 중앙광장에선는 「한반도 평화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불교도의 역할」에 대해 지선스님을 초청하여 (불교대주최) 강연회를 열였다.

이날 강연회서 지선스님은 열두분단이나 남·북 공동개최, 양심수 즉각석방촉구등 평화통일이나, 올림픽 공동개최, 강연을 이룰면서 「민족통일불의 진실성과 연합성을 갖추기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대의원총회에서는 5시 교직원식당에서 「88연합 위안잔치」를 열었다. 40여명의 88연합원이 참석한 이 행사는 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 호평을 받았는데 앞으로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88연합원 위안잔치」를 가질 계획이라고.

낮1시부터 학생회관앞에서 열린 써연주최 「민중 백일장」은 40여명의 학우가 참가한 가운데 열려 날카로운 세태풍자및 큐미성을 가미한 작품이 쏟아져 나왔다.

오후1시에는 철학과 주최 「변혁적 세계관으로서의 철학」이라는 심포지엄이 있었으며, 문과대에서는 「30년대 민족해방운동의 전개과정」이라는 주제로 역시 심포지엄을 가졌다.

국과과주최 「정치와 분학의 밤」은 국회의장시인 권영민 (서울대) 교수가 강연을 한후 참석학생들과 「질의와응답」 토론방식으로진행되었다.

하나됨으로

또 「대동민족 모의 대통령선거」가 현재의 정치상황을 풍자하여 민「금대산」 민주투쟁의 「금대신」 후보와 민중대표가 기지에 찬 작품으로 세태풍자및 큐미성을 가미하여 나왔다.

오후6시 대운동장에서 열린 대동제는 축제기간중 학생들의 가장 많은 참가를 기록한 행사였다. 「민족의화합」과 「민족통일」으로 나누어벌어진 「민족해방굿」은 인원부족등의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짓날뛰기 종목에서 과격성을 돋보여 승리했으나 고싸움에서는 대장이 패했으며 가장 관심을 끌었던 영산줄다리기는 승패의 여부보다 10여일간 발생을 하며 꾼 전석에 박수를 보내줄만.

축제 폐막제에 이은 제등행렬은 여느해와는 달리 本校대운동장에서도 4백50여명의 학생들이 출발했다.

이날 행진은 시청과의 협조속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기는 했지만 동사무소에서 나왔다는 청바지 차림의 장갑낀 아저씨 (?) 50여명의 보호를 받아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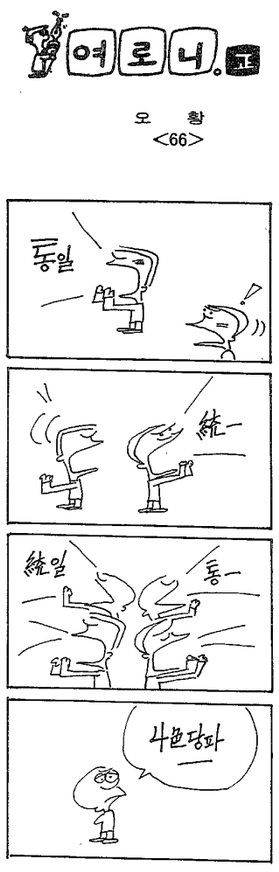
대운동장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된 빗줄기는 동대문 부근에 이르자줄기가 굵어지면서 연등을 하나둘끄기도 했지만 행진하는 학생들은아랑곳하지않고 끝까지 질서 정연하게 행진.

×

이번 목멱대동제는 동국의 하나됨을 위한 대동단결의 장이 되도록 기획했지만 행사준비의 촉박, 홍보의 미비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다시 등장했다.

특히 찾은 행사주최 단체의 총괄하는 총학이 전반적 행사진행사항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점들을 지켜내지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축제의 전반적 짜임새가 루너져 축제에의 참여를 스스로 줄어들게 했다. 대학문화의 총체적 발현의 장이다. 현대사회에있어 뜨거운 불꽃의 삶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었읍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불신과 고정관념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었다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참으로 아무런 조건없이 조국과 민중에 대한 사랑으로 온몸을 던진 열사의



오！한강

김세영作 · 허영만畵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적 과제인 분단 문제를 다룬 이념만화 「오！한강」 1, 2권이 나왔다.

일제수난기부터 해방, 6·25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작인 출신으로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 사상적 방황을 하는 화가를 통해 우리의 근대사를 쉽게 드러내고자 했다.

<원정출판사 刊 · 148面 · 천4백원>

경제학 사전

풀빛편집부 篇

고전—정치경제학의 개념들을 설명하고 근대 경제학의 주요 개념을 수록한 경제학사전이 6여년간에 걸친 기획·집필과정을 마치고 풀빛 편집부에서 발간했다.

전면 한글쓰기 형태로 되어 초보적인 연구자나 일반교양인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놓았으며 한국경제사및 경제정책, 사회운동, 시사용어등을 수록하고있다.

<풀빛刊 · 648面 · 만8천원>

다시 기다리는 연습

김용철 作

본교 동문이며 소설가인 김용철씨의 꽁트집 「다시 기다리는 연습」이 혜진서관에서 간행되었다. 「무너지는 어깨」「산성의 달」 등 총26편의 글이 실려있는 이 책은 헤어짐과 만남의 과정을 「헤어짐이 만남인지 만남이 헤어짐인지…」라고 묘사하고 있으며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구수한 대화체로 그리고 있다.

<혜진서관刊 · 329面 · 3천5백원>

文化의 문지기

社會學者 존·호올 (John Hall)은 그의 저서에서 出版業에 관여하는 전문인을 이르러 「文化의 문지기(gate keeper)」라고 했다.

물론, 확고한 意識을 가진 사람이거나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아래서 命名된 바인 만큼 책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이를 이르는 總稱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그런대로 타당성있는 立言이라고 본다.

출판이라고 하는 것이 인쇄물을 제작 수용자에게 공급하는데 그치는 단순 행위가 아닌, 문화적 제요소를 종합 검토한 후 이에 타당한 구체적 자료 및 그 실상을 제시해야 하는 전문영역임을 시사한 바이고 아울러 이상과 현실의 어느 일면도 간과하지 않은 가장 절충적인 것임을 단적으로 보인 비유라 보여진다.

각설하고, 사회의 모든 직종이 나름대로의 사명과 특유의 영역이 있겠으나 출판만큼 그 공유면적이 넓은 것도 흔하지 않으리라 본다.

우선 出版이라고 하는 실제작업이 수행되기 이전에 그 시대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원하며 관심을 가지는가에 대해 간파해야 하고 아울러 이것이 지는 도덕성이나 가치 그리고 사회학적인 면에서의 기여도를 측정해야 한다. 아울러 出版이 단순한 사회기여의 봉사가 아닌 만큼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익계산을 추정하는 일도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이 兩面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하는 점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그 해답이 단일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이 두가지 성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도서의 성패나 경영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원고청탁에서 도서제작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면도 주요공정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후, 판매를 위한 공급의 문제도 앞에 열거한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 출판 경영인이 실패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앞에 열거한 양

면 중 어느 일면에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라 보여진다. 그러나 이 글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바는 출판 자체를 「장사」라는 일면에서만 치중해 본래의 사명을 망각한 데서 비롯된 악영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해 주로 언급하고자 한다. 무슨 일이든 그 일이 지닌 궁극적인 의미와 현실적인 제문제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는 難點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제조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경우 목적을 확고히 하는 경우보다는 수단에 치중하기 일쑤이며 이는 종래에 가선 마지막 길에 들어서는 길이 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出版風土가 아닌가 보여진다. 여러해 거듭된 불황속에서 본래의 사명을 망각한 일부 출판인들이 신기나 적나라함을 갈망하는 독자들의 성향에 야합, 비윤리나 부도덕이 윤리나 도덕처럼 오인시키고 뿌리없는 센티멘탈이 마치 인간의 휴머니즘처럼 전해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누구의 잘·잘못을 말하기 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비윤리가 윤리로, 부도덕이 도덕으로 오인되고, 뿌리없는 센티멘탈이 마치 인간의 휴머니즘 처럼 전해지고 있다

외국 잡지나 선전물에 게재된 문구나 사진이 그대로 복제되어 실려있고 그들 나라에서도 일부 성인들 사이에 떳떳하지 못하게 보여지는 내용들의 책자가 버젓하게 서점에 꽂혀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각성해야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것 같다. 특히 청소년들의 손에 닿게 배치해 그들을 최고의 수용자로 만드는 일은 죄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물론 그런 일부 서적이 있다해서 다른 독서풍토에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나 이는 크게 위험한 생각이다. 일단 그런 내용의 책에 눈이 가면 진정 그에게 필요한 책들은 어쭙지 않게 느껴지고 시시한 것들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한 推論이다.

이럴 경우 출판인은 문화의 문지기가 아닌 잡부로 전락한다.

다시 언급하는 바로 「文化의 문지기」란 말은 엘리트주의에서비롯된 명명인 것이다. 적당히 웃기고, 흥분시키고 때로 괄탄에 몰아 넣어버리는 것을 문화라고한다면 인간의 촉촉한 서정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것이며 상실된 체온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부활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 출판인이 가장 많이, 그리고 솔직하게 부착시켜야 할 문장 부호는 따옴표다.

남의 얘기가 마치 나로부터 산출된 생각처럼 행세하거나 다른 나라의 저질잡지에 실린 사진이 마치 美의 극치처럼 내보여지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그런 일은 권장할만한 일도 아니다. 얼마 전에 출판법이 허물어지듯 부셔지고 나서 이런 현상은 더욱 만연하고 있다. 적어도 자기 가정에 들어가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아끼는 후배 동료들에게 권할수 있는 책을 만들고, 백 년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할 때 모든 것은 제 자리를 찾는 격이 될 것이다. 비록 영세업이라 해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公人의식으로 자신을 무장시킬 때 이 나라의 출판풍토는 성숙하게 될 것이고 아울러 훗날 부끄럽지 않을 이름을 남기는 일이 되리라 본다.

조 완 호

<혜진서관 대표>

화제의 책

살아나는 팔

李 相 文 作

본교 동문인 李相文씨의 창작집 「살아나는 팔」은 10편의 단편과 3편의 중편으로 묶여 6·25와 분단, 민족의 비애를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가난한 여인의 부정과 도농(都農) 간의 문화관습과 빈부격차를 말하는 「열두 발자국」은 유교적 가치관에 갈등하는 연인들의 고뇌에서 벗어나 부정과 가난과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소리와 그늘」은 장기집권을 노리는 자유당 선거유세를 통해 위정자들의 실정이 얼마나 한국 농촌을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했는가를 고발하고 있으며 이산의 아픔을 그린 단편 「바늘 한 도막」도 이땅의 풀지 못할 한 (恨)을 이야기하고 있다.

주로 당대 한국 현실의 민주화와 부의 분배, 노사간의 갈등, 그리고 학생운동을 소설화시켜 정통적인 소설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이 창작집은 작가 이상문의 현실에 대한 작가정신의 소생과 동시대 현실에 맹목하지 않고 깨어있는 모습들을 하나하나의 소설을 통해 비추고자 했다.

<훈겨레刊>

—文化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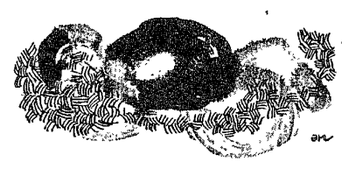
메아리

▲어제는 이천오백 설흔 두번째 맞는 「부처님 오신날」. 이땅의 어둠을 밝히고 중생구도를 위해 왕자의 부귀영화를 떨치고 고난의 길로 나선 「고타마 싯타르타」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땅에 전해진 3세기이후 佛敎는 1천6백여년간 우리민족과 호흡을 같이 해온 그야말로 민족종교이다. 허나 근래에 들어 교계내에서의 자성의 소리가 들리곤한다. 요즈음들어와 불교가 수많은 중생의 고통을 도외시한 채 권력에 아부나하고 그들의 비위나 맞추는 교단의 일련의 「작태」를 비판하고 새로운 모습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각종 불교 관련 단체의 활동이 그러하다. 특히 지난 19일 저녁, 본교 소강당에서 있었던 「민족화합 공동올림픽 추진 불교본부」(대표 법성스님)의 결성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21일 저녁 제등행렬에 참여했던 「민중불교연합」과 「대학생불교연합」 회원들은 행렬도중 「남북 공동올림픽개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역시 불교가 우리 민중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모습이라 하겠다. ▲얼마전 명동

공동 올림픽

성당에서 「올림픽 공동개최」와 「구속자 전원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고 할복·투신자살한 조성만군의 죽음이후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한 세인의 관심이 높아졌다. 불교계에선 전에부터 「공동올림픽 추진본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일올림픽」, 「평화올림픽」, 「민주올림픽」의 대의와 올림픽공동개최를 위한 체육회담 내용공개등의 성명을 발표했으며 同본부를 결성하고 공동올림픽추진을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천주교나 기독교계에서도 이산가족의 자유왕래와 문화교류, 올림픽공동개최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올림픽남북공동개최」가 시기적으로 늦고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헌장에 위배되며 단일팀구성의 경우도 국호나 국기, 國歌를 어떻게 정해야할지 많은 문제가 있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我田引水격으로 나온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1천만 이산가족의 아픔과 한민족이라는 민족공동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이다. 부처님은 자기자신만의 해탈을 위해서 이땅에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煥>



그리운 얼굴

은사시나무 고운 숲으로
새처럼 날아 올 것같아
기약없이 너에게 편지를 쓴다
피맺힌 목소리는
어느 별 속에 숨겨두고
밤마다 부질없는 그리움으로
적막한 마음을 두드리느냐
꽃같이 아름답게 살고 싶다던
서러운 약속은
황사바람 속으로 날아 가고
편도선을 앓으며
우리모두 더러운 얼굴 하나 하나
강물 속으로 던졌다.

백 규 흥

<시인·인문대 국문과>

"빛과 어둠 그리고 땅"

——88 동국예술제를 보고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하여 열리는 本校 축제가 이제 개교 82년의 성상과 함께 「목멱대동제」로 거행되었다.

이에 예술대학 학생회는 올해 처음으로 예술대학이 신설, 기념비적인 해를 맞은 만큼 의의를 되새기고 참된 대학문화의 창달과 사회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88동국예술제」를 기획, 보름동안 다양하게 선뵈었다.

연극영화과의 「연극제」「영화제」「동국예술인의밤」과 미술학과의 「미술제」「학술세미나」로 꾸며진 이번 예술제는 예술대학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해에 첫 시도된 제전이어서인지 알차고 성의있게 꾸미고자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

연영과에서 제226회 실습공연및 축제공연으로 축제기간내에 발표된 연극제는 몰리에르作·김창용 연출로 「재치를 뽐내는 아가씨들」이 공연되었는데 인간의 내면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소박한 덕성을 강조하고, 전체적흐름이 코믹과 풍자로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예리하게 꼬집는대사와 등장인물의 특이한 성격으로 관객들에게 「생각하는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다.

연극제에 이어 마련된 영화제는 졸업작품 발표회와 타대학의 우수작품을 각각 1편씩 상영함으로써 대학영화의 현위치를재조명해 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성폭행을 당한 한 여자를 통해 성폭행사건이 얼마나 인간을 부패시키는가하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거리로 부각된 성 개방풍조를 경계했고, 삶의 주체인 인간이 스스로 주체임을 거부하고 삶의 객체로 전락해 버린 인간의 이야기를 담은 「폐쇄회로」, 그리고 「봄이오는 길목」 「Dreamin」 등이 졸업작품으로 4일에 걸쳐 상영되었다.

또한 서울예전의 「칸트씨의 발표회」 중앙대의 「여름사랑」 한양대의 「아빠참새」가 찬조작품으로 같이 상영돼 한층 신선감을 주었다.

이번 영화제를 거울삼아 기존의 영화가 주로 폭력이나 성의 혼란을 조장하는 장면으로 점철돼 단순히 흥행에만 열을 올렸던 점을 상기하면서 저질·퇴폐문화를 척결하고 분단상황이라는 민족적 비극이외에 영화자본의 영세성, 현체제의 부정적 영향력및 제반악법의 폐해로 해방이후 별진전을 보이지 못한 한국 영화산업에 각성의 계기를 마련, 우리 영화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진은 「영화제」中의 한장면

며군다나 85년부터 미국영화가 국내시장에 완전수입개방됨으로써 한국영화는 채 기반도 다지기전에 뿌리째 흔들릴지경에 이르렀음을 볼때 앞으로 한국영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학생들의 절실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동대미전」을 비롯하여 「현대미술의 반성적 이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갖는등 미술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예술대학 학생회 주최로 꾸며진 「88동국예술제」는 비교적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예술의 여러 측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했고 소비오락적행사가 난무하는 축제에 다소 신선함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매년 축제의 열기를더해주는 「동국 예술인의 밤」은짜임새있는 구성에도 불구하고 무대제작의 미흡이나 사전 연습의 부족으로 대학문화제전의 창달을 도모하고자 한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

本校 예술대학은 그동안 사회에 뛰어난 인재를 많이 배출, 그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또한 정기·비정기공연및 전시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만큼 그 실력을 높이 평가받고있다.

예술대학의 신설에 따라 수반되는 제반어려움과 학교측의 적극적 뒷바침이 시급히 선행되어야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대학문화내에서 표출되는 순수성·자주성 그리고 민족성등을 창출해 내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민중예술로서 학생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면서 일면에서는 문학적 정서와 날카로운 현실비판의 움직임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없다.

예술지상주의를 추구하는 상아탑에서 「문화의식 고양」이 대학문화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고 예술대는 이를 담당하는 일선의 자리에있음을 하고숙지 외래문화속에서 우리고유의 문화예술의 영역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김경애 記者>

(경) 부처님오신날 불기2532년
동국대학교 개교82주년 (축)

동국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大韓佛敎曹溪宗
宗正 性徹

◎元老會議
議長 崔月山

◎總務院
院長 徐義玄

總務部長 章文仁
敎務部長 金道永
財務部長 朴世敏
社會部長 黃日面
糾正部長 鄭普日
秘書室長 陳玄根

總務局長 金度呪
敎務局長 姜宗蘗
財政局長 金松江
社會局長 成圓明
糾正局長 薛寂雲
調査局長 李雪松
情報局長 安炫岩
常任監察 崔洪瑾
院長首席秘書 金法明

◎中央宗會
議長 柳月誕

副議長 趙學能
〃 崔香雲
事務處長 宋正山

◎護戒委員會
委員長 金法傳

初審委員長 洪奉珠

◎布敎院
院長 成岩度

布敎部長 朴道悟
鍊修部長 鄭暎道
布敎局長 車德信
鍊修局長 金東允